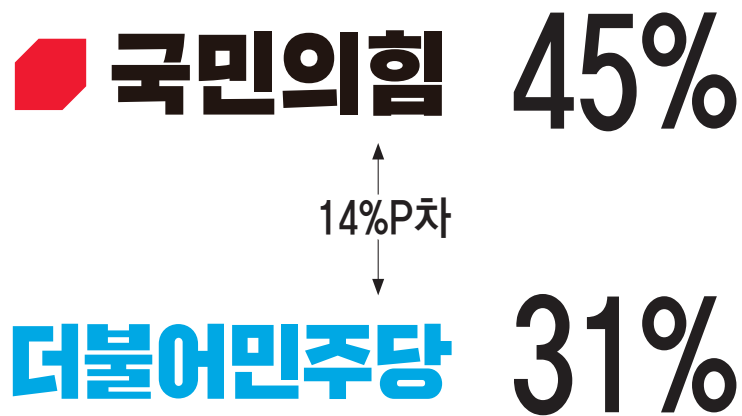




국힘 7년여 만에 지지를 최고

尹대통령 취임 후 11%P↑
새 정부 출범 컨벤션 효과
地選 최대 변수 작용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취임 후 1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힘은 7년 6개월 만에 정당 지지를 최고치를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격차를 14%p로 벌렸다.

04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이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후 지지율 상승)를 톡톡히 보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 '잘 못하고 있다'는 37%로 나타났다.

당선인 신분 마지막 조사였던 전주의 긍정 평가는 41%였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직무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60%,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8%로 집계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도 1주일 전보다 5%p 오른 45%를 기록했다.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등을 포함해 보수정당 지지율로서는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다. 민주당은 10%p 급락한 31%로 집계됐다.

3월 대선 직전부터 지난주까지 양대 정당 지지율 격차는 3%p 이내였다. 이 밖에 정의당은 5%, 무당층은 18%였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지지율 급등락 현상은 5년 전에도 있었기에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해석도

있다. 2017년 5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3%p 급등, 창당 이래 최고치(48%)를 경신했다. 반대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이 7%p 떨어졌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통상적인 컨벤션 효과라 볼 수 있는 이번 지지율 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전국 단위 선거에 가장 큰 변인으로 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가를 최대 변수로 윤 대통령의 취임 초 지지율이 꺾였다"면서 "당선인 시절 지지율이 여론조사 업체마다 다르나 대개 당선 직후 역대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취임식 이후 컨벤션 효과가 지지율을 떠받치면서 선거 때까지 '국정 안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퍼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야권 입장에서 선거에서 '대통령 취임식' 컨벤션 효과를 무위로 돌릴 한 방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처럼 민주당이 '반드시 낙마' 후보군을 추려 공세를 펼쳤지만, 칼날은 무디기만 했다"면서 "오히려 여당은 윤 대통령 취임에 힘입었고, 민주당은 성 비위 의혹으로 선거 전 도덕성 위기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단견으로 보기보다 추이를 살피는 게 중요한데 선거 때까지 이 분위기를 뒤집지 못하면 야당으로서의 곤혹스러운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 조사원이 무선 90%·유선 10% 무작위 전화 걸기(RDD)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3%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헌집이 안 팔려서...새집 못 들어가요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을 이틀 앞둔 13일 대구 수성구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에게 직접 만든 카네이션과 감사의 편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미입주 사유 '주택 매각 지연' 최대

지난달 6대 광역시 입주율 83.8%
잔금 대출·세입자 확보도 걸림돌
올해 시장 물량 많은 대구 경고등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 아파트 입주 전량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올해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 주택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 전량지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상대로 4월 전국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미입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입주율은 82.3%로 3월보다 0.4%포인트(p) 줄었다. 수도권은 87.6%에서 88.9%로 다소 상승했으나, 지방은 81.6%에서 80.9%로 하락했다. 6대 광역시는 85.1%에서 83.8%로 떨어졌다.

미입주 원인 가운데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잔금 대출 미확보' (30.6%), '세입자 미확보' (24.5%), '분양권 매도 지연' (8.2%) 등 순이었다.

4월에 비해 5월 아파트 입주 전량지수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5월엔 85.4로 4월(91.7)보다 6.3p 낮아질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03.1에서 99.4, 광역시는 93.2에서 86.1로 각각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대출 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 부담, 매매 거래 감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입주율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입주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이후 연말까지 입주 예정 물량이 1만5천700여 가구에 이르는 대구의 경우 주택 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시장 경색 국면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악재가 모두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파트 입주 전망이 눈에 띄게 개선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정민 기자 cwolf@imaeil.com

가스총회 첫 화두는 '에너지 믹스'



유가·천연가스 연쇄 인상 우려에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 기술 토론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하는 '2022 세계가스총회'의 첫 화두는 '에너지 믹스'(energy mix)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 믹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이 여파로 다시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 에너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계가스총회에서는 국제 에너지기구 수장과 글로벌 에너지기업의 주요 임원진이 모여 에너지 믹스에 대해 집

에너지 믹스=에너지를 섞는다는 의미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에너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뜻이다. 한 종류의 에너지원 공급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중적으로 논의한다.

오는 25일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는 강주명 국제가스연맹(IGU) 회장과 조셉 맥도니글 국제에너지포럼(IEF) 사무총장, 페드로 미라스 살라망가 세계석유회의(WPC) 회장이 만난다. 이들은 '글로벌 에너지 믹스의 다양성, 복잡성,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들 수장이 머리를 맞댈 문제는 더 있다. 에너지 믹스를 달성할 기술 혁신과 정책 방향, 여러 에너지 자원의 미래 역할,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석탄

등 기존 연료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심층 진단한다.

이에 앞서 24일에는 '에너지 전환과 안보를 위한 글로벌 가스 시장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기조발표가 진행된다.

S&P글로벌 수석 전략가이자 국제에너지 콘퍼런스 'CERAWEEK'의 부회장인 마이클 스토포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피터 클라크 엑손모빌 글로벌 LNG 총책임자, 맥 오닐 우드사이드 에너지 CEO, 옥타비오 시모에스 텔루리안 CEO가 연사로 나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에 각국이 취해야 할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이 외에 '에너지 공급 안보의 글로벌·지역 전망'과 '가스·재생에너지-저탄소 에너지 전환의 파트너'를 주제로 현안 토론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에너지 장관이 제안하는 해법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민물장어양식수협 51번 중매인
대구·경북 민물장어 유통명가

대구수산물

오히츠 인수

백화점가게



대구수산은 30년 이상 노하우로 만든 특제건강소스(고추장, 간장)와 채생강 서비스, 깔끔하고 위생적인 민물장어 초벌구이 밀키트, 업계최초 24시간 무인자판기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사랑받아 온 2021년 선정 백년가게입니다.

오히츠는 대구에 몇 없는 민물장어 장인이 직접 활장어를 바로 잡아 요리합니다. 최고급 수입 숯으로 직화하여 도심에서 느끼는 '숯향 가득한 장어덮밥'과 남녀노소 좋아 할 고급지고 건강한 식사, 깔끔한 후식 및 커피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예약 필수 맛집입니다.



가정의 달 맞이 선물세트로 민물장어초벌구이 밀키트가 제격! 소중한 분에게 선물하세요

대구수산물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69

053-425-7611

오 히 츠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52길 14-5

053-745-6280

구미·경주·안동 ‘산업·문화·관광 특례’ 발빠른 준비

지방자치법 개정·신청 길 열려

경북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산업·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특례를 받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구미시와 경주시, 안동시 등 3곳이 특례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특례를 인정받았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와 무관하게 행정수요 등 필요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특례시와 같은 명칭은 없다.

구미시는 구미에 산재한 산업단지 활성화, 산업구조 재편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특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행정안전부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협의도 예정돼 있다.

구미, 신산업 육성 용역 완료
경주, 역사·문화재·관광 연계
안동, 낙동강 둔치 활용 모색
경북도 “신규 발굴 적극 지원”

‘특례 시군구 지정 대비 구미시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용역’도 이미 지난해 말 완료했다. 도내 시군 가운데 특례 지정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주시는 역사·문화·관광 분야 특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주는 세계문화유산 및 문화재 국내 최대 보유 도시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 특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하반기 행정부 컨설팅 신청을 할 예정이며, 연구 용역도 발주할 방침이다.

안동시는 시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낙동강 둔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낙동강 둔치에 공원 시설, 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 현재 ‘안동시 특례 발굴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최종 결과가 나온다. 이를 활용해 하반기 행안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가 사전 준비를 마치고 신청을 접수하면 행안부 지자체 특례심의 위원회에서 실질적 행정 수요가 있는지, 국가균형발전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의해 의결한다. 이를 통과하면 특례를 위해 필요한 법령이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

치가 이어진다.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 등 해당 기관은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특례에 맞는 행정을 펼칠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경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이미 진행 중인 시군 특례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직 검토 단계인 시군 특례 신규 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채 기자 pyc@maeil.com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한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청사 외부에 설치된 코로나 센터의 모습. 이날 정부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PCR 검사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의 음성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 완화지침을 발표했다.

23일부터 입국시 신속항원검사 인정

내달부터 의무검사 2회→1회로 해외여행 문턱 더 낮아질 전망

국내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절차가 완화돼 해외여행의 문턱이 더 낮아질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 국내 입국에 필요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신속항원검사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PCR 검사 비용과 시간이 줄면서 여행업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는 1일차에 PCR 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입국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PCR 음성확인서와 같이 인정하기로 했다. 단, 아직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1일차에 받던 PCR 검사를 ‘3일 이내’로 늘리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

고’로 바뀐다. 이로써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그동안 여행업체는 입국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해왔다. 입국 전 해외에서 받아야 하는 PCR 검사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PCR 검사를 받을 경우 1인 당 100~200달러의 비용이 든다. 4인 가족으로 환산하면 최소 50만 원 이상 써야 하는 셈이다.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선 PCR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격리 면제 연령도 더 높여 입국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서광호 기자 kozmo@maeil.com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창기 국세청장 박일준 산업부 2차관

尹 정부 첫 국세청장 김창기·산업부 2차관 박일준

〈봉화·청구고〉

〈포항〉

처장·차관·외청장 21명 인선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대구경북(TK) 출신의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에 지명한 것을 비롯해 처장·차관·외청장 21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는 포항 출신의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산업부의 경우 지난 9일 차관급 인선에서 임명된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2차관에도 TK 출신 인사가 발탁됐다. 이로써 차관급 인선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날 처장급에선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 인사혁신처장에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보훈처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급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조정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은 곳으로,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외청장 10명도 일괄 인선했다.

국세청장에 퇴직자 지명은 처음
산업부 1차관·통상교섭팀 이어
2차관도 지역 출신 인사로 발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해 대표적인 TK 출신 인사로 꼽힌다. 그는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개인납세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뒤 퇴임했다. 국세청 퇴직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경험이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세청 공정과세추진기획단에서 팀장을 맡아 정부 핵심 과제였던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업무를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장엔 윤태식 기재부 제세실장, 조달청장엔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

장, 통계청장엔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병무청장엔 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 문화재청장엔 최은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농촌진흥청장엔 조재호 전 농림부 차관보, 산림청장엔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엔 이상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새만금개발청장엔 김규현 전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각각 임명됐다.

각 부처 차관급 8명도 추가 임명됐다. 법무차관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출신의 이노공 변호사가 발탁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검사를 지냈다.

과기부 1차관에는 오태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주영창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는 김건 주영국 대사도 발탁됐다.

산업부 2차관에는 포항 출신 박일준 전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이기순 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국토부 2차관에는 어명소 국토부 물류교통실장, 문체부 2차관에는 조용만 전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기재부 출신이 문체부 차관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은경 기자 ekkang@maeil.com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네이버, 다음에서 법화경전문강설을 검색하세요

킹스대학교 前 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

尹정부 “지출 10% 삭감”…대구경북 예산확보 비상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위해
예산안·기금 편성 구조조정
“모든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 “국비 확보 새전략 필요”

예산 당국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모든 재량 지출 사업에 대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예산 당국의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 지침으로 인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선 대구시와 경북도의 전략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말에 예산안·기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추가 지침은 국정과제 확정에 따른 예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지침은 중앙 부처가 새 정부 정책과제의 추진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요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병사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30만→40만 원)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 ▷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 원 부모급여 ▷청년도약계좌 신설 ▷청년 원가주택 30만호·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새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예시로 제시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강도 높은 재정 혁신도 추진한다.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요구하고, 의무지출은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부처 일각에서는 사실상 10%보다 더 많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

에 나선 대구시와 경북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소 10% 수준이면 실제로는 더 강도 높은 칼질이 이뤄질 것”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에 지장이 가지 않게 새로운 전략 구상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도 “정권 상황과 관계없이 예년보다 더 내실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규 사업 반영에 있어선 보다 더 어려운 여건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은경 기자 ekkang@imae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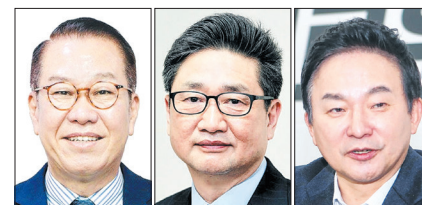
통일 권영세 문화 박보균 국토 원희룡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권영세 통일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권영세, 박보균, 원희룡 세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18개 부처 중 14개 부처에 장관이 임명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전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야 이견으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다만 법에 따라 이들 세 명처럼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권영세 박보균 원희룡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미뤘다.

이로써 이날까지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부처는 ▷법무부(한동훈) ▷보건복지부(정호영) ▷여성가족부(김현숙) 등 3곳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해 새로 인선을 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한동훈 후보자와 김현숙 후보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호준 기자

“민생 안정 최우선” 윤대통령 첫 외부 행보서 경제 쟁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참석

금융 악화·실물경제 둔화 우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제 대응
北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 세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 현장 행보로 13일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 참석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적극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과 최재영 국제금융센터장을 비롯한 민간·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경제·금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각국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실물경제 둔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 보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국민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면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그걸 바탕으로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찾은 국제금융센터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위기 예방을 목적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시장감시 및 분석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구체

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대북 인도 지원 방침을 밝힌 것으로,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와 북측 간의 대화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호준 기자 hoper@imaeil.com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민주, 낙마 대상 규정 채택 거부
강행 땀 한덕수 총리 인준도 난항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후보라며 임명 반대를 주장해온 한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 강행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무려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명 강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이 이뤄진다면 국회 동의를 필수적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동성애·위안부 비하 논란
김성희 비서관 자진 사퇴

김성희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급 첫 낙마 사례다.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글 등으로 논란을 빚어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비서관은 과거 SNS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밀린 화대’라고 표현한 글을 게재했다. 이러한 글이 논란에 휩싸이자 진화에 나섰지만 불을 더욱 키우기만 했다. 이호준 기자

과 함께하는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착한 소비!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우리의 이웃인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동네 상권을 적극 이용하고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에 다같이 동참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탭시다.

DGB대구은행

“대한민국 중심으로 경북 위상 되찾겠다”

이철우 도지사 재선 출마 선언

“새로운尹 정부와 호흡 맞출 것”
기업 유치·청년 성장 등 공약
경쟁자엔 선거 중립 당부도



준 10만4천여 개를
창출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시대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
라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생각
한다”며 앞으로 경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다.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가
13일 경북 안동에서 선거사무소를 열
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경북관광위를 방문해
경북도지사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나섰다.

이 후보는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
지 않는다’(마부정제·馬不停蹄)는 말처럼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겠다”면서 “대한민국 산
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과거 경북의
위상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 동안 경북은 코로나19 팬데
믹 속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달려온 결과 투자유치액이 민선
7기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 현재까지
당초 목표액(20조 원가량)을 넘어 30조
7천억 원을 실현했다”며 “최저임금 이
상의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양질의 일자리도 지난해 말 기

이 후보는 또 2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5대 주요 공약을 발
표했다. 5대 주요 공약은 ▷기업 유치
를 위한 경북형 혁신네트워크 구축 ▷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배우고 일할 기
회 제공 ▷명품 공향·향만 건설을 통한
경제 교두보 마련 ▷낙동강, 백두대간,
동해안 등 생태자원 부가가치 개발 ▷
보육부담·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실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경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후보에게도 “이번 지
방선거가 우리 경북의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허위사실 유포, 인
신공격, 명예훼손이 없는 3무 선거운동
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받은 당의 1호 공천은 도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도민공천’이라고 생각한
다”며 “도정의 최우선 가치는 ‘위민’(爲
民·백성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
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영진 기자 solive@imaeil.com

강은희·엄창옥, 대구시교육감 후보 등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12, 13일 양일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구시교육감 재선 도전과 출마를 선언한 강은희(왼쪽) 현 교육감과 엄창옥 경북대 교수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12, 13일 양일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구시교육감 재선 도전과 출마를 선언한 강은희(왼쪽) 현 교육감과 엄창옥 경북대 교수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마의 30% 넘기는커녕...민주에 더 험난한 TK

“혹독한 지선·보선” 암울한 전망

여야가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
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총력전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협지’ 대
구경북(TK)에서는 ‘마의 30%’를 넘보
기는커녕 4년 전 지방선거에서 확보한
교두보 수성(守城)조차 힘에 부칠 것이
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 득표율 30%’, ‘소
속 현역 기초의원 43명 중 과반을 사수’
등의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선거일이 19일 앞으로 다가온
13일, 지역 정가에서는 여야를 막론하
고 TK 민주당에게 이번 선거가 가장

대구 보수 지지세 견고한데다
당내 불화·공천 잡음까지 심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
다. 대구에서는 늘 맞서온 견고한 보수
지지세에 더해 지난 대선 패배 이후 불
거진 당내 불화, 공천 잡음 등 ‘삼중고’
를 겪고 있어서다.

특히 대구 민주당은 청년·여성을 우선
한 공천 결과를 두고 반발한 다수의 현
직 기초의원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를 택하면서(매일신문 11일 보도) ‘적전
분열’ 양상이 극심하다. 심지어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 과반
의석 등의 성과를 냈던 수성구의회에서

“4년 전 확보 교두보 수성 불안”
선거비용 보전 받기 힘들 수도

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현직 구의원 세 명
이 당적을 버렸다.

민주당 한 당원은 “이번 대선 결과처
럼 진영 간 골이 깊은 시대다. 각 진영
이 결집하는 광역단체장 선거 등 일부
를 제외하면 대구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도 받기 어려울 수도 있
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뜩이나 대선 패배 이후 혼란
스러운 상황을 수습할 구심점이 지역
에 없는 데 공천을 두고 또다시 내홍을
겪고, 무소속이 나오면 표는 더욱 깨질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어도 고사 직전
인 지역에서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북에서도 4년 전 승리한 구미시장
선거를 이번에는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선거에서는 장 후보가 자유한국
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 불복한 인사
의 등장으로 이점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보수 분열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난해부터 호남 구애에 적극적으로 나
서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주당이 TK에
무심한 것도 TK 민주당이 이번 선거
서 고전할 수밖에 없는 한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홍준표 기자 pyoya@imaeil.com

지선·보선 레이어

“지지부진 ‘신광도시개발사업’ 조속 실행”

김정곤 경북도의원 후보

김정곤(57·사진) 전 구미시의원이
13일 경북도의원 구미 제3선거구(지산
동·광평동·신평동·비산동·공단동)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다.

김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구미시
의원 재선(6·7대)을 지냈으며, 구미시
청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이 지역 출신이 아닌 것에 대
해 주민들의 반발이 드세다”며 “주민들
이 선택한 무소속 후보로 반드시 당선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하
고 있는 신광도시개
발사업의 조속한 실행
과 광평동 수출탑
우회도로 개설, 셋강 생태공원 관광자
원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겠
다”면서 “33만㎡ 규모의 대규모 복합위
락시설을 조성하고, 지산·도랑 터널과
계획도로를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겠
다”고 약속했다.

전병용 기자

선거 유세 중 “민주당 개XX야, 썩 꺼져라 XXX야”

쌍욕 테러 당한 강민구 수성구청장 후보

“서글픈 대구 현실...살면서 이런 욕 듣긴 처음” SNS에 하소연

기다리고 있었다는 강 후보는 이 시민
이 달아나지 않도록 가방끈과 팔을 잡
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이 청년이) ‘민주당 개XX야
십XX야, 썩 꺼져라 XXX야’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무차별 쏟아 부었고, 너
무 모욕적인 욕설을 들은 저는 경찰에
신고해 했다”면서 상황을 설명했다.

강 후보는 “경찰을 기다리던 시간에

도 청년의 욕은 끊이지 않았고 도망치
려는 청년의 가방의 앞부분을 잡았다.
주변 도움으로 현장 증거가 짧게 남았
다”고 했다.

이어 “당신은 처음 보는 아버지뻘에
게 개XX야라고 하냐?”고 해도 그의 욕
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나가는 사람
과 건너편 빨간 점퍼 후보에게 자신의
의협심을 자랑하듯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후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
선거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보
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보다 하루 앞선 11일에는 퇴
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로하고자
민주당 대구시당이 거리에 설치한 현수
막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하는 일도
발생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 사안
을 경찰에 신고했다.

대구시당은 “대구에서 민주당에 가입
하고 정당 활동을 하며 살아가면 잘못
하는 건지 진실로 묻고 싶다”며 “이런
식의 ‘물지마 미움 발산’은 그 누구에게
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수현 기자 sontag@imaeil.com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매일신문 구미애독자 일동

요양병원 감염병 예방 시설 기준 만든다

환기시설·격리실·면회실 등
“설치 의무 안 지키는 곳 많아”
1165곳 대상 실태조사 예고
감염 관리 담당 조직도 점검

정부가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 내 감염병 예방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관리실과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병원 내 감염병 대응 조직을 신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의 환기시설과 격리실, 면회실 등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2017년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은 환기 시설 설치 의무가 있지만, 요양병원은 법 개정 이전에 개설된 경우엔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 이전 개설한 요양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1천437곳 중 1천165곳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내 감염 관리를 담당할 ‘감염관리실’과 이를 감독할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천270곳을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미설치 병원이 감염병 대응 조직을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에 감염예방관리를 신설해 감염관리실 설치 병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 확진자 동선 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등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방역 당국은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응할 기동 전담반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계약 의사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 배치된 간호사와 계약 의사가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 요양실’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aeil.com



3년 만에 운동회

13일 대구 서구 경덕여자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봄 운동회가 3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모처럼 체육 활동에 나선 학생들이 춤을 추며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안성환 기자 asw0727@maeil.com

“낙동강 상류에 1급 발암물질 취급 공장 웬말”

영주시 허가 소식에 주민들 반발

경북 영주시가 낙동강 최상류인 서천변에 1급 발암 물질인 납 등을 재활용하는 산업폐기물처리공장을 허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다. 시민들은 낙동강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허가 취소 등 반대 투쟁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13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A업체가 영주시 적서동 869-1번지 일대 부지 1만4천703㎡에 고철·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촉전지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를 했다. 이후 A업체는 해당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 2천71㎡와 사무실 211㎡, 기숙사 211㎡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시민은 “영주시가 투자유치 명목으로 전국 어디에도 받아주지 않는 산업폐기물처리공장을 허가한 것은 정말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황선종 내성천보존회 사무국장도 “낙동강 상류 청정지역에 독극물을 취급하는 공장이 허가 난 것은 용납

할 수 없다”며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적법한 허가였다는 입장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1.7㎡/hr 규모의 용광로에 보관시설 450㎡ 1기, 방지사설 중력·원심력·여과·세정 집진시설이 들어오는 소규모 공장”이라고 말했다. A업체 대표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대기오염은 20억 원을 들여 집진시설을 완벽하게 갖춘다. 코로나 때문에 주민 설명회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 동의를 다 받았다”고 말했다. 마경대 기자

‘울릉군, 마을회관 일방적 철거 및 체육시설 외면?’ 관련

반론보도

지난 3월 28일 자 사회면 ‘주민공동 재산 마을회관, 군이 일방적 철거통보’, 29일 자 사회면 ‘마을회관 철거동의 얻어내고 편의시설 건립 약속 오리발?’ 제목의 기사에서 울릉군이 마을회관을 임대해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를 퇴거 조치하고, 마을과 공동소유인 천부리 마을회관을 주민에게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철거 결정했으며 철거 후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마을회관 창고는 법적으로 군 소유이고 철물점은 군

과 임대차 계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울릉군은 2021년 5월 마을 대표자로 구성된 개발위원회의 서면 동의를 받아 철물점에 대한 철거절차를 진행했고, 현재 주민편의 시설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 중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군 행정을 추진하는 일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매일신문

교통 안전 관리 엇갈린 성적 대구 ‘우수’ 경북은 ‘평균 이하’

대구, 단속 인력·장비 최고 수준
경북, 3개 부문 최하점 ‘E 등급’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통안전관리 평가에서 대구와 경북이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대구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로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경북은 평균보다 낮은 점수로 12위에 그쳤다.

13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지자체 교통안전성과지표’에 따르면 대구는 86.3점으로 울산(88.6점), 서울(87.1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교통안전성과지표에는 교통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책, 관리 단속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다.

대구시는 총괄조정기구의 운영과 단속 인력과 장비의 확보 수준에서 A등급을 받았다.

교통안전전담부서 운영,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은 B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노후 차량 비율이 높아(D등급)

향후 개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평균(82.1점)을 밑도는 80점으로 하위권인 17개 시·도 중 12위에 그쳤다.

경북은 총괄조정기구의 운영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노후 차량 비율, 화물용 차량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에서 모두 가장 낮은 점수인 E등급으로 평가됐다.

다만, 17개 시·도 모두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흡한 단속 인력 및 단속 장비와 높은 노후 차량의 비율 등에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화물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와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의 지표 점수도 전반적으로 낮아 후속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 안전성과 지표 평가는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의 현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세연 기자 ksy121@maeil.com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건설 승인 적법”

“사업 승인서 결정적 위법 없어”
1심 판결 뒤집고 구청 손 들어줘

대구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인근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계획 승인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결정적 위법 사유는 아니며, 각종 건축 규제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3일 수성구 두산동 주상복합아파트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이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수성구청은 지난 2020년 12월 수성

못 인근 두산오거리 일대 3천923㎡ 부지에 최대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 및 조망권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해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주민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업이 원고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점을 인정하면 서도 수성구청의 사업 승인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으로 원고들의 생활환경이 일정 부분 침해되더라도 사업 승인으로 생기는 공익 및 사업부지 소유자 재산권도 무시않게 크다”면서 “아파트가 도심화 된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고 제한할 규정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maeil.com

부동산

상가

일반상가

요양원으로 변경할 모텔5층 용안고4역

모다아울렛(성서) 근접 매매

임대 격정없는 月2500出

병원빌딩

대형식당

경산 갓바위 입구 상가

모텔

모텔사우나 성업중

돈버는 무인모텔

무인모텔 6억5천

반값호텔 1천인수

전원주택

산삼 향토찜질방

성주 포천계곡

민박 및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동구

대지/임야/공장

※바다뷰 최상※

공장 영천IC 5분

이현동

의성IC앞 공장

대도로 상업지역망

청도 화양읍

군위 소보면 땅

※공장 1층 임대

의성 콘크리트공장

주물허가 공장

투자 최적지

※가창※

이현공단 내

청도군 금천면

※산경매공장 성주

기타부동산

스크린골프장 양도

대구 다사읍

논밭도지구합니다

농사대신

모집

기자 대모집

냉동기사 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 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배달원모집

DGB Index (13일)

코스피 2,604.24 (+54.16P)

코스닥 853.08 (+19.42P)

국고채금리 (3년물, 연%) 2.911 (+0.011P)

환율 (원·달러) 1,284.2 (-4.4원)

금값 (19) 75,510 (-1,160원)

DGB대구은행 **DGB**

증권연계계좌를
더 가깝고 더 편리하게!

**-14개 증권사의
증권계좌 개설 가능**

**-공모주 청약부터 해외주식
투자까지증권연계계좌로 가능**

*계좌별 상품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5050 / 1588-5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심사번호 제21-151호 (2021.04.01 ~ 2022.03.31)

예탁결제원 수료 31개 기업 매출 392억·투자유치 93억

한국예탁결제원 대구지원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기업들이 뚜렷한 매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 대구지원은 지난 2017년 대구고객센터에서 대구지원으로 승격한 뒤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성장지원 프로그램 'K-CAMP 대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구지원에 따르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기업 중 31곳은 지난 3년 간 크라우드펀딩, 벤처투자, 정책자금 확보 등을 통해 모두 93억원의 투자유치, 392억원의 매출, 84명의 고용 창출 실적을 기록했다.

투자유치액은 2019년 12억원에서 지난해 64억원으로, 매출액은 99억원에서 159억원으로, 고용인원은 123명에서 207명으로 증가했다.

대구지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자격이 있는 기업에 대한 펀딩모집 지원사업인 'CF(Crowd Funding) Star Contest' 참가기업을 모집 중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최대 800만 원이 지원된다.

채원영 기자

조각투자 가파르게 성장하는데…보호망은 엉성

고가의 자산 '분할 투자' 방식 미술·부동산·저작권 등 확산 100만명 이용 플랫폼도 등장 투자자 보호 불명확 주의해야

조각투자 산업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각투자는 자산을 작은 단위로 조각낸 뒤 분할,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 자산 하나를 직접 구입하지 않아도 그 자산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연예인들을 통해 광고에 많이 노출, 유명세를 탄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 카우'도 그런 예다.

조각투자 분야는 다양하다. 고가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미술품을 조각 내 함께 구매한다는 얘기는 이미 낯설지 않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한 가상 자산. 미술품이나 고가의 부동산뿐 아니라 시계, 와인, 한우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조각투자 산업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음악 저작권을 판다는 뮤직 카우는 회원수 100만명을 넘어섰고 기업 가치 또한 1조원에 이를 것이라 추정도 나온다. 각각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와 테사도 회원 수가 10만명을 넘

졌다.

다만 판매하려는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따져본 뒤 투자하라는 게 금융·증권 업계의 조언이다. 카사처럼 최소한 규제 샌드박스(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곳이라면 투자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뮤직 카우만 해도 엄밀히 말해 투자자가 갖는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에 대한 참여 청구권이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 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조각투자 산업에서 투자계약증권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자 권리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와 타인 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 등을 들어 뮤직 카우의 사업에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뮤직 카우는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뮤직 카우에 대해선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재를 유예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은 새로운 투자 시장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자산 자본 관계가 명확



자외선 차단도 멋스럽게 대구신세계 헬렌카민스키는 야외활동 필수품인 모자를 선보인다. 헬렌카민스키는 '라피아'라는 소재를 이용해 100% 수작업으로 제품을 만드는 후주의 명품 모자 브랜드다. 사진 속 '사비나' 상품은 넓은 리본으로 클래식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하지 않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단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 확실치 않다.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만 할 뿐 투자자가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지도 않고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채정민 기자 cwoil@imaeil.com

코스피 9거래일 만에 반등

저가 매수세 힘입어 2600선 회복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2600선을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에 힘입은 결과다.

1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4.16포인트(2.12%) 오른 2604.2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건 지난달 29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이날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지수는 장중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645억원, 기관이 8천576억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9천67억원을 순매도했다.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 역시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나스닥이 장 후반 상승세로 반전했고 코스피에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대부분 상승했다. 삼성전자(2.47%), SK하이닉스

(3.21%) 등 대형 반도체주가 오름세를 보였다. 미국에 전가자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전해진 현대차(3.32%)와 LG에너지솔루션(3.22%), 삼성SDI(4.43%) 등 2차전지주도 상승세를 탔다. 강세를 보였다. 네이버(1.67%), 카카오(1.36%) 등도 IT주도 모처럼 반등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계(3.35%) 쪽 강세가 두드러졌다. 전기·전자(2.77%), 제조업(2.26%), 건설업(2.22%), 운송장비(2.18%), 금융업(2.01%)도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에도 훈풍이 불었다. 전날보다 19.42포인트(2.33%) 오른 853.08에 장을 닫았다.

코스닥시장에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이들 역시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은 1천742억원, 기관은 1천284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2천996억원을 순매도, 코스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다. 다만 셀트리온헬스케어(-4.54%), 셀트리온제약(-2.79%)은 하락세였다.

채정민 기자

‘中企 육성 17개 정책’ 대구시장 후보에 제언

경영평가 제도 개선·인력지원 등 중앙회, 업종별 현안 관심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3일 지역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훈준표(국민의힘), 서재현(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전달했다.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가구공업협동조합,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 업종별 협동조합은 양 후보와 지역 미래 정책비전, 주요현안을 공유하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대구시의 지속적인 관심

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자생력 강화 지원 ▷지방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 맞춤형 인력+금융 지원책 도입 ▷대구 주얼리산업 '기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지원 시책 수립 ▷광역지자체 가업승계 지원 조례 제정 ▷중소기업 ESG 경영력 강화 정책 추진 ▷중소기업 인식개선 주간 도입 ▷건강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언했다. 이들은 또 ▷지역 천연염색산업 활성화와 정책 수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 중소기업 전

용 물류센터 구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시 분리발주 적극 활용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서대구 역세권 재개발 ▷메타버스 기반 중소기업 글로벌비즈플랫폼 구축 ▷미래차 전환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섬유산업 생산설비 등 첨단화 지원 ▷노후공단 입주기업 중심 기업환경 개선 지원까지 모두 17개 제언을 전달했다.

김강석 중기중앙회 대경본부 지역회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정책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채원영 기자 chae10@imaeil.com

결혼정보

초·재혼 국제결혼,
결혼정보회사, 스튜디오
개인, 웨딩샵
광고문의: 251-1234



한국결혼정보원

국제·국내·초혼,재혼
010-3810-3003 ★독립 매니저 초창★
010-8181-8024(옥산성) 동탄(가 21)~18

국내 수임결혼정보 초혼
전문 (초혼) 의사·교사등 대구경북·서울등(다수확보)
(재혼) 재력가, 공직, 안정적 다수확보
홈페이지 www.zzakk.com 지사/매니저모집
T. 010-4811-0690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45(관음동)11호 대구2008-38

유익한 생활정보

광고문의: 251-1234



묘목 판매

◆과 실 수 : 감, 대추, 사과, 체리, 오디,
복숭아, 자두, 살구,
◆조 경 수 : 사철, 연산홍, 왕벚, 남천
◆약 용 수 : 가시없는 두릅, 가시없는 엄
나무, 참두릅, 엄나무, 구지
뽕, 구기자, 오미자, 가시없는
복분자, 오갈매, 홑나무,
가죽
◆산소조경 : 황금촉매, 옥향
송정원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1037번지
010-7150-3429 / 010-4008-4823

병원·의원·약국 개원
컨설팅전문 임대/매매/양도양수
金興助 김홍조 상무이사
☎ 010-7317-4579

13인승 대형개인택시
골프·외전 및 관광도~!!
가족 및 개인임, 단차는
13인승
출라티 택시로!
010-5877-3336 / 010-3824-5775

주식, 선물, 코인(가상화폐), 금융,
건강식품, 천연료, 각종종은 사업아이템
거래 전문가 초빙
사무실(무궁화백화점 5층505호)원비
(충청남도서천읍(남동)) 010-5574-6766

풀칼라 LED전광판
◆공장도 판매◆
풀칼라동영상시대 / 기존삼색 / 보상매입
시공 / 전직문의 / 상담환영
국제LED ☎ 1877-3166

개인회생 / 파산
빚 고민 상담
파산관재인 9년 경력
회생 또는 파산 - 선택중요!
변호사 소칠용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74길 27, 2층
053)754-1151

진산철학관
사주, 점성, 궁합, 점술, 명운, 건강운,
사업운, 학업, 승진, 전학, 시험운, 이서,
매운, 복합, 사정, 병환이 고생하는 분
친절상담, 즉석선지, 한양대 생활역학 1기 졸업
장소: 지리원 28호선 내(명동역 3번 출구) 앞사구 파도고개로 207
파도고개 방향 250m 우측(마음길 2층)
전화: 654-7145, 010-8566-8497

칠·방수
※ DPI 도색 전문 ※
노출 콘크리트 내·외부 시공
건물·주택·옥상 방수, 우레탄 방수,
회사 공장바닥 에폭시 시공,
기계도색, 풀라톤, 무니코드,
APT 내·외부공사, 실내·외 도색
성진도로 (상화 페인트 대리점)
053)552-7217, 010-3507-7216
대구 서구 내당동 297-18

계령철학원
점명, 사주, 궁합, 택일, 사성 풍수
(이장, 가족무원전문)교육
대한역학인연합회 회장
대구 대서구 죽전로18 (강심동 46-15)
www.namdosa.com
053-568-2525 (010-3814-0200)

중고피아노
매입·판매
(운반·조율)
고객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39년을 지켜온 세광피아노사,
항상 고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광피아노사
010-4802-0541
대구 중구 남산동2112-2(명박역1번출구)

별목 임업 전문
위험수목 제거
태양광모듈 청소·예초기
(주)푸른임업·별초
053)424-6567, 010-8773-6567

파산 면책/개인회생
신용불량 탈출!!
세계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김대봉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804호
010-6429-3814

고화질 최신 CCTV
대구경북 판매1위 업체
30년 기업 영컴통신
1566-3829

가발은 역시 가발명장 셀모로
* 당일내)가발 티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
[핀,본드 없이 편한 특허가발]
100% 인모 100%수작업
60만~120만
80년 연구한 가발! 셀모가발 010-6250-3899
(국제기능대학 산업석사, 가발명장 중서) (반월당 23번 출구앞)

부부 금슬 좋아지는 케겔운동! 이제 자동으로 하세요! 코마 그래핀 자동 케겔 운동기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 OK!!



**요술 방식의 특별함을 직접 느껴보세요!
(남녀공용)**

**노벨상 수상의 신소재
그래핀 원단 사용
수퍼 게르마늄, 황토볼 내장**

간편한 케겔운동 / 코마 그래핀 자동 케겔운동기구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 케겔운동은 남, 녀 모두에게 도움되는 운동법입니다.

케겔운동이 필요한 중년 남, 녀

부부 금슬이 좋아지고 싶은 부부

앉아서 근무 하는 시간이 많은 분

배에 힘을 주면 찢끔 거리는 분

남성답게, 여성답게 생활하고 싶으신 분

케겔운동의 효과를 확실하게 느껴보실 분

왜? 부부에게 케겔운동인가?

미국의 의학박사 아놀드 케겔이 창안한 케겔운동은 대퇴부에서 꼬리뼈까지 이어진 근육 골반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여성은 자궁과 방광, 남성은 전립선과 방광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케겔운동으로 남성의 전립선을 강화시켜 밤새 화장실을 들락이는 현상을 줄일 수 있고 여성은 질과 항문을 수축시켜 말 할수 없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기능이 저하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부부끼리의 갈등도 많아 지게 된다. 특히 작은 일에 마찰이 많아 지는데 부부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는 아랑을 베풀어야 해결책이 나온다. 특히 부부관계는 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또다른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시발점은 바로 노화로 인한 문제점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에서 제작

순수한 국내 기술력으로 국내 시설에서 만들어진 코마 그래핀 자동 케겔운동기는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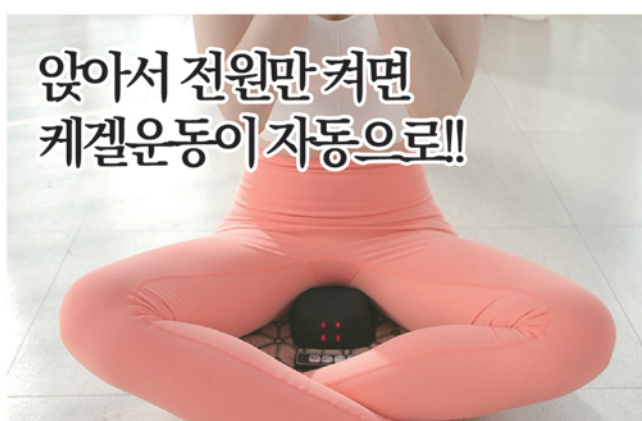
방석처럼 앉아만 있으면 자동으로 OK

그래핀 코마 케겔운동기는 사용이 간편하다. 일반 방석처럼 의자에 올려놓거나 방바닥에 놓고 앉아서 작동만 시키면 케겔운동, 적외선, 진동마사지가 가능하다. 부피가 적고 가벼워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전립선, 요실금을 해결해야 부부생활 원만

그래핀 코마 케겔운동기는 남성의 전립선을 강화시키고 여성의 질과 항문을 수축시키는 케겔운동기로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더욱 의미가 크다. 케겔운동은 남녀노소가 없으며 누구나 운동을 하면 전립선건강,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다.

**앉아서 전원만 켜면
케겔운동이 자동으로!!**



남성에게 좋고 여성에게 더 좋은 케겔운동

남성을 남성답게 하고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 주는 운동이 바로 케겔운동이다. 나이가 들어 가면서 남자가 느끼는 허전함은 바로 전립선계통의 문제를 알게 되는 순간일 것이다. 전립선계통이 안좋으면 남자는 매사에 의욕을 잃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가지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간단한 것이 케겔운동이나 전립선 강화 운동이다. 그래핀 코마 케겔운동기는 이러한 남성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강력한 진동으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품인 것이다. 여성들도 출산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과 같은 증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된다. 요실금과 같은 증상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고민거리로 대다수 중년 여성들이 겪어야하는 증상인 것이다.

케겔운동, 왜 효과를 볼 수 없을까?

"지속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력한 진동을 회음부에 가하면서 케겔운동을 해보라. 여성 냉증에도 진동요법이 좋다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다. 좌욕이나 반욕대신에 케겔운동기로 케겔 마사지를 하면 회음부 주위의 근육 이완시켜 여성 냉증 요실금에 좋다. 그래서 온도를 맞춰 좌욕하는 번거로움이 없는 간편한 케겔운동기가 많은 인기를 얻고있다.

미국의 의학박사 아놀드 케겔이 창시한 케겔운동!
부부가 함께 지금 시작하면 생활이 바뀝니다!



코마 그래핀 자동케겔운동기구

전동을 통해 신체의 중심(코어)근육을 반복 자극하는 운동 기구로 특정진동을 전달하여 앉아만 있어도 케겔운동에 도움을 주는 기구입니다.

좋은 줄은 알고 있지만 케겔운동은 어렵다구요?

앉아만 있으면 코마 케겔운동기구가 자동으로 다 해 드립니다!

케겔운동기 - 써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케겔운동, 쉽고 간단하지만 부부에게 정말 좋습니다.



저희는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는 60대 부부입니다. 60대가 되니 배에 조금만 힘을 줘도 소변이 나올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가끔은 실제로 소변이 조금 새더라구요. 전립선 문제로 새벽 화장실 출입도 잦아지고 있어 걱정도 되고 고민이 많이 되었지요. 나이가 들어가면 요실금도 문제지만 전립선이나 회음부의 괄약근 등이 약해지면서 남녀 모두에게 원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 할수 있는 간편한 운동이 케겔운동이라고 TV나 신문을 통해 간간히 알고는 있었습니 다. 그전까지는 그런 현상들은 나에게 일어 나지 않을 다 남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나에게 닥쳐오고 있으니 신경이 많이 쓰 이더라구요. 제 아내 역시 나이는 피해갈 수 없어 여러가지 신체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자동으로 케겔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제품을 만나게 되어 부부가 함께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사용해 보았지만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좋아졌지만 다 표현을 할 수는 없고 저와 제 아내가 걱정하던 부분은 대부분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당연한 현상들을 방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마 그래핀 자동케겔운동기를 선택한 우리 부부는 작은 행운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더욱 친밀해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같이 마음이 매우 좋습니다.

〈대구 황금동 최미숙 66세〉

화장실 다녀와도 찢찢하면. 케겔(진동) 운동기로 해결!

간편하게 할수 있는 케겔운동기 - 남, 녀 모두에 도움

케겔운동 매일 30분 이상 하면 요실금 증상 개선

신소재사용으로 더욱 안전하고 강력한 기능

- 코마 그래핀 자동 케겔운동기구 보도자료 -

남성 어르신도 요실금 많아. 케겔운동으로 호전가능

배에 힘을 줄 때 소변이 나오면 복잡성 요실금 ..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

괄약근 조이는 케겔운동 꾸준히 해야.. 개선 안되면 수술 등 삶의 질 저하...

〈출처:이슈연 기자 2020.08.07〉

선착순 100분 한정 70% 파격할인!

~~기존가
330,000원~~

99,000원

문의 : 1599-6683

신용카드 6개월 무이자 할부
(월배비 4,000원 소비자부담)

기세 오른 대구냐? 홈 불패 김천이나?

상위권 도약 두고 'TK 더비'

프로축구 대구FC와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이 14일 'TK더비'를 앞두고 있다. 양 팀의 승점차가 3점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는 양팀에게 리그 상위권으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FC는 14일 오후 4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김천을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2'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현재 리그 11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대구는 8위(승점 12점), 김천은 6위(승점 15점) 등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리그 2위 포항스틸러스가 승점 19점인 점을 감안하면, 양 팀은 앞으로 경기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리그 상위권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3라운드 첫 만남에선 고재현의 득점으로 대구가 김천에 1대0으로 승리했다.

최근 대구의 분위기는 좋다. 특히 지난 수원삼성전을 통해서 한동안 실종됐던 공격력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대구FC는 11라운드 홈경기에서 수원삼성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다. 부상에서 돌아온 세징야가 1골 1도움을 올리며 화려한 복귀를 신고했다. 올 시즌

대구, 수원戰서 공격력 회복 세징야·제카 조합 자리잡아

김천, 홈 3승 1무 '승률 87%' 득점 선두 조규성 활약 기대

합류한 장신 공격수 제카도 세징야와 좋은 합을 선보이며 1골 1도움을 기록,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기세가 오른 대구지만, 상대인 김천도 만만치 않아 이날 경기는 팽팽한 접전이 펼쳐진다.

올 시즌 홈에서 리그 네 경기를 치른 김천은 3승 1무로 87.5%의 승률을 기

록하고 있다. 리그 1위 울산(홈 승률 90%)에 근접한 수치다. 김천의 '골잡이' 조규성은 대구의 입장에서 경계 대상 1호다. 올 시즌 리그에서 11경기 8골을 터트린 조규성은 인천의 무고사와 함께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중원의 플레이메이커 이규성의 날카로운 패스도 위협적이다.

한편 리그에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은 15일 FC서울 원정경기에 나선다. 지난 7라운드 맞대결에서 서울과 1대1로 비긴 포항은 이번 경기를 잡고 2위를 굳게 지킨다는 계획이다.

신종연 기자 shyoun3@imaeil.com

SON, 亞 최초 EPL 득점왕 성큼

아스널 상대 리그 21호 골 터트려 득점 1위 살라호에 한골 차 추격

손흥민(30·토트넘)이 아시아 출신 최초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등극을 향해 불꽃 투혼을 발휘하고 있다.

손흥민은 13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 2021-2022 EPL 22라운드 순연 경기에 선발 출전, 2대0으로 앞서던 후반 2분 썸머 골을 터트려 팀의 3대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 시즌 손흥민의 정규리그 21호 골이다. 손흥민은 1일 레스터 시티전에서 리그 18, 19호 골을 연달아 터트렸고, 지난 시즌 자신이 세운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17골) 기록을 넘어섰다.

동시에 그는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1985-1986시즌 레버쿠젠 소속으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넣은 17골도 넘어 한국 축구 선수의 유럽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갱신했다.

정규리그에서만 21골(7도움)을 넣은 그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의 1골(1도움)을 포함해 이번 시즌 공식전에서 총 22골(8도움)을 작성했다. 이는 역시 지난 시즌에 나온 자신의 한 시즌 공식전 최다 골(22골)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EPL 시즌 21호 골을 터트린 후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이기록이다.

또 손흥민은 리그 21번째 득점으로 이란 공격수 알리레자 자한바크시(페예노르트)가 보유한 아시아 선수의 유럽 프로축구 1부 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21골)에도 타이틀을 이뤘다. 손흥민은 남은 정규리그 두 경기에서 득점을 추가하면 한 시즌 최다 골 기록과 자한바크시의 득점 기록까지 넘어설 수 있다.

무엇보다 손흥민이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는 현재 EPL 득점 1위를 달리는 무함마드 살라호(리버풀·22골)다. 조금씩 살라호의 뒤를 쫓던 손흥민은 최근 리그 8경기에서 10골을 몰아쳐 어느새 한 골 차로 틈을 좁혔다. 손흥민이 살라호를 넘어 득점 1위를 차지하려면 마무릴할 경우, 아시아 출신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오른다. 연합뉴스



13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 그랜드 볼룸B 로드물 ROAD FC 060 계체량 행사에서 페더급 챔피언 박해진(왼쪽)과 도전자 김수철이 계체량을 통과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메인 이벤트 경기는 14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다. 로드FC 제공

3년 만에 돌아온 로드FC...파이터들 계체량 검사 “문제없다”

오늘 대구체육관서 명승부 펼쳐

코로나19를 뚫고 3년 만에 대구에서 열리는 로드FC 060 본 대회를 앞두고 13일 출전 파이터들의 계체량 검사가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대구 인터블고호텔 엑스코 그랜드 볼룸B에서 열린 로드물 ROAD FC 060 계체량 행사에서 권아솔만 0.1kg 초과로 1차 계체량에 실패했고 27명이 모두 무난히 계체를 통과했다.

14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로드FC는 (주)태왕과 굿네가 공동 개최하

는 경기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만큼 주목되는 매치들로 구성됐다.

메인 이벤트로 박해진(29·킥링 MMA)과 김수철(30·원주 로드짐)의 페더급 타이틀전이 열리고 코메인 이벤트로 권아솔(35·FREE)과 남의철(40·답앤하이 스포츠/팀 사내남)의 복싱 스페셜 매치가 펼쳐진다.

페더급 챔피언 박해진은 2019년 9월 대구에서 열린 페더급 타이틀전에서 이정영에게 경기 시작 10초 만에 펀치 TKO로 진 '흑역사'가 있다. 이번에 아픈 경험을 이겨내고 승리를 따낼 수 있

권아솔 1차 계체량 0.1kg 초과 나머지 선수 27명 무난히 통과

박해진·김수철 타이틀전 기대 이정현·아마모토 한일전 눈길

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김수철은 체중을 월장해 도전하는 만큼 '무모한' 도전이 될 지, '위대한' 도전이 될 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와 함께 6연승을 질주 중인 '래퍼 파이터' 이정현과 '추석훈 제자'로 잘 알려진 세이코 아마모토의 한일전, 나란히 3연승을 기록 중인 김현우(피

니쉬)와 양지용(제주 팀더킹)의 밴텀급 매치도 기대를 모은다.

이날 메인이벤트 박해진과 김수철은 각각 65.9kg, 65.8kg으로 계체를 통과했다.

'도전자' 김수철은 "2차전을 받아준 박해진에게 고맙다. 화끈한 경기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해진은 "살아있는 레전드 수철이 형과 한 번 더 시합하게 됐다. 수철이 형이 가져올 전략이 뭘지 모르겠으나 저도 파트를 나눠서 준비했다. 로드FC 챔피언으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우정 기자 kwj@imaeil.com

대구대 씨름부 전국대회 개인전 메달 휩쓸어

표진수·박준성 용장·역사급 우승 이태현·고민혁·박중현 2위 올라

대구대 씨름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을 펼쳐보였다.

9, 10일 경남 창원 진해문화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학산김성룡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용장급에 출전한 표진수(체육학과 3학년)와 역사급에 출전한 박준성(체육학과 3학년)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대학부 개인전의 다양한 체급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이태현(스포츠레저학과 2학년)은 소상급에서, 고민혁(스포츠레저학과 1학년)은 용장급에서, 박중

현(스포츠레저학과 2학년)은 장사급에서 각각 2위에 올랐다.

표진수는 "그동안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부진했는데 이번 시합을 계기로 징크스를 떨쳐버렸다"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너무나 기쁘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병한 대구대 씨름부 감독은 "시합을 거듭하면서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고 특히 개인전에서는 2체급 우승과 5명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는 등 출전 팀 중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단체전에서도 꼭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했다. 김우정 기자

2022 어린이 사랑 다자녀가족 사진&UCC 공모전

총상금 : 1,500만원 5/15일까지

주제(택1)

- 사랑스러운 어린이
- 행복이 가득 담긴 다자녀 가족
- 결혼, 출산, 가족의 소중함

접수마감 : ~5월 15일(월) 23:59까지

출품자격 : 개인 또는 팀(4인 이하)으로 누구나(내·외국인 제한 없음)

출품방법

매일신문 앱 또는 홈페이지(imaeil.com) <사진·UCC공모전> 배너 클릭 <접수>

- **표현** : 자유(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등), 미발표작
- **출품수** : 1인(팀) 4점(편) 이내 / 출품료 없음, 사진 및 UCC 복수 출품 가능
- **출품부문**
 - **사진** : 1MB(1,042KB) 이상, jpg파일로 접수
 - **UCC**(광고, 패러디 등 자유형식)
 - 규격 : 30~90초 이내, 해상도 1280x720 pixel 권장, 100MB 이내
 - 파일형태 : mp4, wmv, avi, mov 등 영상 파일
- **유의사항**
 - 일상적으로 선정된 경우 고학질 원본 영상과 썸네일(JPG) 별도 제출
 - 동영상 시작 화면에 작품제목과 팀(개인)명 표기
 - 끝 화면에 BGM 제목 등 출처 반드시 명시

※ 제작에 사용된 음악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음원이어야 하며, 출품작의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음악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or.kr)에 문의

주최 **대구광역시** **每日新聞**

협찬 **NH** **대구도시공사** **금복문화재단** **D&B&C**

벽체 방수

노후된 건물을 신축처럼! 드라이비트, 인조석, 타일 방수 전문



뒷면 벽체 타일 보수



측면 특수 방수 및 도장



정면 완공 모습



인조석 건물



적벽돌 건물



싱글타일 지붕

옥상 방수

견고하고 오래가는 방수! 부분 수리 가능!



시공 전



방수 후



완공

시공 건물

빌딩 상가 원룸 주택 아파트 교회 창고 학교 유치원 병원 호텔 등

방수한 건물 옥상 태양광 설치 상담 / 공장 상가 우사 등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

방수와 칼라

대표 1566-4158
현장 010-3525-4498



팬데믹 시대 두통·피로·기억력 감퇴...

새 변화가 藥



팬데믹 브레인

정수근 지음/ 부키 펴냄

“페스트 환자가 되는 건 피곤한 일이다. 그러나 페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 더욱더 피곤한 일이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한 구절이다. 인류는 전염병과의 오래되고 질긴 악연 속에서 감염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온갖 대책을 고민해왔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는 적을 마주한 인류의 정신에는 커다란 공포가 새겨질 수밖에 없었다. 공포는 새로운 보건 의료 시스템 등 기술 발전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됐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양식이 바뀌기도 했다. 전염병의 창궐은 곧 인류사의 변곡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염병의 영향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팬데믹은 한 인간의 뇌와 마음에도 변화를 만든다. 이를 살피고 분석해내는 것은 심리학, 뇌 과학, 신경 과학의 영역에 해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후 2년여가 지난 2022년 4월,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및 시간제한이 전면 해제되는 등 방역지침이 완화됐다. 그동안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직접 감염되진 않았더라도 팬데믹이 일상에 미친 심리적 영향은 매우 크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전 세계인이 강제로 참여하게 된 ‘사상 최대의 사회적 고립 실험’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훗날 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실릴 순간을 사는 우리 앞에는 여전히 의문과 우려가 산재한다. ‘과연 코로나19에 걸리면 정말 우리 뇌가 손상될까’, ‘완치 후 후유증은 얼마나 오래갈까’, ‘팬데믹 기간에 태어난 신생아들, 마스크 쓴 얼굴이 익숙하고 비대면 수

코로나 경험 있던 없는 인지 기능은 손상 감염 전후 살펴보니 회백질 두께 얇아져 이동제한·봉쇄...사회 고립도 일부 영향 대표 증상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빈번 저하된 뇌 기능 부활·심신 깨우는 법 소개

업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의 인지 발달은 괜찮을까’, ‘팬데믹 때문에 저하된 뇌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은 무엇일까’.

하버드대에서 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총복대에서 인지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수근 교수는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직접 찾아보고 그 결과와 데이터를 정리했다. 신간 ‘팬데믹 브레인’은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은 책이다.

저자는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이 있다면 뇌와 인지 기능에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다. 영국의 건강 빅 데이터 보유 기구인 바이오뱅크(UK Biobank)가 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전후의 뇌 영상을 비교한 결과 신경 세포체가 밀집돼 있는 회백질의 두께가 얇아져 있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사망자의 뇌를 검사해보니,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을 앓은 사람의 뇌처럼 여기저기 손상을 입었음이 확인됐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러한 타격을 피할 수 있을까. 저자는 걸린 적이 없어도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으로 뇌 손상과 인지 기능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이동제한과 지역봉쇄 등이 초래한 사회적 고립이 뇌와 인지 기능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대표적 증상은 ‘브레인 포그’(Brain Fog)다. 두통과 피로, 기억력 감퇴 등으로 머릿속에 안개가 가득 낀 것처럼 멍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이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코로나로 인한 뇌 손상은 다른 뇌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 책은 우리 뇌가 경험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고 달라질 수 있다며 힘을 준다. 예컨대 치료 목적으로 뇌의 절반을 제거해도 남은 절반의 뇌가 제각각 뇌의 기능을 이어받아 수행한다. 덕분에 환자는 절반의 뇌만으로도 얼마든지 정상생활을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뇌 영역의 크기가 줄고 인지 기능이 쇠퇴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많은 뇌 영역이 활성화한다. 연구자들은 이런 뇌의 가소성 덕분에 팬데믹 종식 후 인지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측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저하된 뇌 기능을 되찾고 지친 심신을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자는 “우리 뇌와 인지 기능은 새로운 경험과 자극에 노출될수록 더 발달한다”며 “생소한 동선으로 출퇴근하거나 낯선 점심 메뉴에 도전하는 것,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즐기거나 새 취미를 찾는 것처럼 일상에서 소소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와 함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영역의 부피가 커지고 뇌 영역 간 연결성도 좋아진다. 여기서 충분한 수면과 스킨십은 스트레스 수치를 줄여주고 면역력과 백신 효과를 높인다. 260쪽, 1만6천800원.

신종언 기자 shyoun3@imaeil.com

책 CHECK

역사 속 다문화 이야기

김문환 글·사진/ 홀리데이북스 펴냄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성씨는 2015년 기준으로 5천582개다. 30여 년 전까지 300여 개에 불과했던 한국의 성씨가 이토록 급증한 데는 외국계 한국인들이 그 만큼 늘어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는 드문 화제거리가 아니다. 이는 고대 때부터 한국 역사를 관통한 일관된 현상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심지어 국경을 걸어 잠갔던 조선 시대에도 이웃한 중국이나 만주의 여진족, 일본뿐 아니라 멀리 오키나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신이 오갔다. 우리 고유의 것으로 알고 있는 문화 유산들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외부에서 전래됐거나 융합의 결과물이 심심찮게 있다. 지은이는 매일신문에 고정 칼럼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책은 지은이가 2021년 3월부터 1년간 KBS3라디오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들려준 내용을 재정리해 엮은 것이다. 255쪽, 1만8천원.

전창훈 기자 apolonj@imaeil.com

천천히 가라, 숨 쉬며 그리고 웃으며

틱낫한 지음/ 이현주 옮김/ 담앤북스 펴냄

“꽃과 푸른 하늘과 네가 사랑하는 이는 지금 이 순간에 만 찾아볼 수 있는 것.”

간결하고 소박한 문장이 마음 속 깊은 곳을 강하게 울린다. 한 편의 시, 혹은 한 곡의 노래와 같은 틱낫한 스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준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와 함께 ‘살아있는 부처’, ‘영적 스승’으로 불린 틱낫한 스님. 이 책은 그가 입적한 후 미국에서 출간돼 큰 화제를 모은 ‘Go Slowly, Breath and Smile’를 한국에서 펴낸 것이다.

틱낫한 스님의 사랑과 지혜의 메시지,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깊은 영감을 받아 콜라주 방식의 작품으로 탄생시킨 아티스트 라사니 레아의 그림을 함께 담았다. 짧지만 여운이 긴 문장들을 음미하다보면, 과거 혹은 미래에 얽매어 있던 마음이 어느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176쪽, 1만6천원.

이연정 기자 lyj@imaeil.com

바다를 건넌 사람들 2

부경대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지음/ 산지니 펴냄

전 세계를 통틀어 대다수 역사 속 사건은 주로 땅 위에서 펼쳐진다. 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다른 나라의 땅을 먹느냐, 내 땅이 먹히느냐로 이뤄진다. 그러나 지구의 70%는 물, 다시말해 바다다. 그렇기에 땅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책은 말한다.

바다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부경대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이 펴낸 ‘해역인문학 시민강좌 총서’ 네 번째 책이다. 우연하게, 또는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너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10편을 소개한다.

청나라에 대항하며 명나라 부활을 위해 ‘항청 북망’ 활동을 한 해적왕 ‘정승공’ 이야기, 바다를 표류하다 제주도로 오게 된 외국인 등의 사연 기록한 제주목사 이익태의 ‘지영록’에 담긴 이야기 등 바다에 얽힌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하다. 256쪽, 2만원. 김도훈 기자 hoon@imaeil.com

안녕, 그림책

우르르 광광 폭풍우 치는 밤에는

막달레나 기라오 첼리앙 글/ 크리스틴 다브니에 그림/ 라미파 옮김/ 한울림어린이 펴냄



깊은 밤, 비가 쏟아지자 무서워진 족제비는 등불을 들고 이웃 두더지네로 달려간다. “문 열어 주세요! 비 오는 밤에는 둘이 함께 있으면 덜 무섭잖아요.” 둘은 잠시 마음을 놓지만, 빗줄기는 더 굵어진다. 그렇게 숲속 동물들은 오소리네 집, 토끼네 집, 여우네 집으로 달려가며 무서운 밤을 함께 견딜 친구를 찾는다. 그렇게 아홉 마리의 동물이 모이게 되고 남은 곳은 덩치 크고 사나운 곰의 동굴뿐이다.

‘우르르 광광 폭풍우 치는 밤에는’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동물들이 이웃집으로 달려가는 장면이 반복되고, 친구들이 하나씩 모이는 장면이 반복되는 그림책이다. 안정적인 반복 구조 끝에는 뜻밖의 반전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은 ‘토도독 토도독’, ‘우르르 광광’ 등 다양한 의성어를 사용해 읽는 재미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생명을 먹어요

우치다 미치코 글/ 모로에 가즈미 그림/ 김숙 옮김/ 계림북스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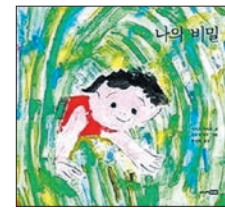


인간이 숨 쉬고 살아가는 과정은 곧 다른 생명을 먹는 일이기도 하다. 겉으로 보면, 어쩌면 외면하고 싶은 진실이다. 그 때문일까. 식탁 위에 오른 음식이나, 깔끔하게 손질된 식재료를 보면서 이것이 한때는 살아 움직이던 생명체였다는 사실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림책 ‘생명을 먹어요’는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카모토를 통해 생명을 먹는 우리의 태도에 질문을 던진다. 사카모토 씨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직업이 싫었다. 도축업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건 잘 알지만, 죽기 직전의 소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불쑥 든다. 저자는 사카모토처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담담한 어조로 풀어낸다. 아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생명과 먹을거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던져주는 책이다.

나의 비밀

이시즈 치히로 글/ 기쿠치 치키 그림/ 황진희 옮김/ 주니어랜덤 펴냄



“있잖아, 난 더하기 빼기를 자꾸 틀려. /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그림은 잘 그릴 수 있어.” 아이는 자신이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자신의 비밀을 말하는 아이를 보고 있다면 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된다. 나아가 그것들을 당당히 말하는 아이가 얼마나 용기 있는지, 또 사랑스러운지를 느낄 수 있다.

일본도서관협회 선정 도서인 ‘나의 비밀’은 반복되는 우울과 리듬감이 돋보이는 짙막한 글에 강렬한 색감과 붓터치의 그림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책이다. 아이가 잘 못하는 것을 말할 때는 글과 그림이 한 쪽씩 나뉘어 있고, 잘하는 것을 말하는 장면은 면을 꽉 채운 그림과 글이 어우러진다. 아이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위축되고 작아진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다.

신종언 기자 shyoun3@imaeil.com

“서로의 경험 나누며 상상의 나라 펼쳐”

세헤라자드 사서의 별벌책

〈18〉여행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안녕, 나는 해외여행을 떠나

이나영 지음/ 상상놀이터 펴냄

공항서 장난감 총 압수 울음
아직도 아기 사진 붙은 여권
자신이 다닌 나라·음식 얘기
신나게 떠들며 또다른 여행

내가 읽은 책

진짜 가족, 선택으로 완성된다

시와 동시, 동화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병승 작가의 장편동화 ‘빛보다 빠른 꼬부기’는 제1회 대한민국 문학&영화 콘텐츠 대전에서 동화 부문에 당선된 작품이다. 나무늘보보다 동작이 더 느린 천둥이의 별명은 꼬부기다. ‘빨리’를 외쳐도 소용없다. 아빠는 시간을 정복해야 성공한다며 활동하는데 제한된 시간을 주고 따르지 않으면 용돈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한다. 학교 선생님도 꼬부기를 이어달리기 대표선수로 내보내면 연습할 데고 그러면 행동이 빨라지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다.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건 전전지가 다했기 때문이고, 키가 안 크는 건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똥똥한 앤 너무 먹어서이고, 꼴찌 하는 애는 공부를 안 해서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행동이 느린 것도 원인을 찾으면 해결된다”(39쪽)며 미루가 나선다. 전쟁에서 장군들이 싸워 이기면 나라를 구

3년간 근무한 어린이자료실은 항상 정신없이 바쁜 곳이다.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아이들과 추억을 쌓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매년 방학 기간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다. 바로 독서교실이다.

독서교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마다 아이들을 상대로 사서들이 번갈아가며 4일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실 학교 선생님도 아닌 사서가 독서교실을 맡아 수업을 꾸려나가는 건 꽤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독서교실 담당자가 되면 아이들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열심히 준비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다섯 번이 넘는 독서교실을 진행했지만 매번 긴장이 된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느끼는 보람이 더 크다.

그간 진행했던 독서교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19년 여름방학 때 있었다. 매년 1, 2학년 독서교실만

진행하다 처음으로 말는 3, 4학년 독서교실이였다. 한두 살 차이지만 여행 경험이 조금이라도 더 많지 않을까 싶어 여행을 주제로 잡았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던 책은 ‘안녕, 나는 해외여행을 떠나’다. 이 책은 아이들을 위한 해외여행 가이드북이다. 환전의 정의, 여권을 만드는 방법,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 설명까지 해외여행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던 때 아이들이 해외여행을 생각보다 많이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돼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5명의 아이들 중 다수가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러시아에서 살다 온 아이도 있었다. 해외 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해외여행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한 아이는 어릴 때 여권을 만들어, 아직도 여권에 유아시절의 사진이 붙어있

다며 웃었다. 공항에 장난감 총을 들고 갔다가 보안요원에게 압수당해, 울면서 여행을 시작했던던 아이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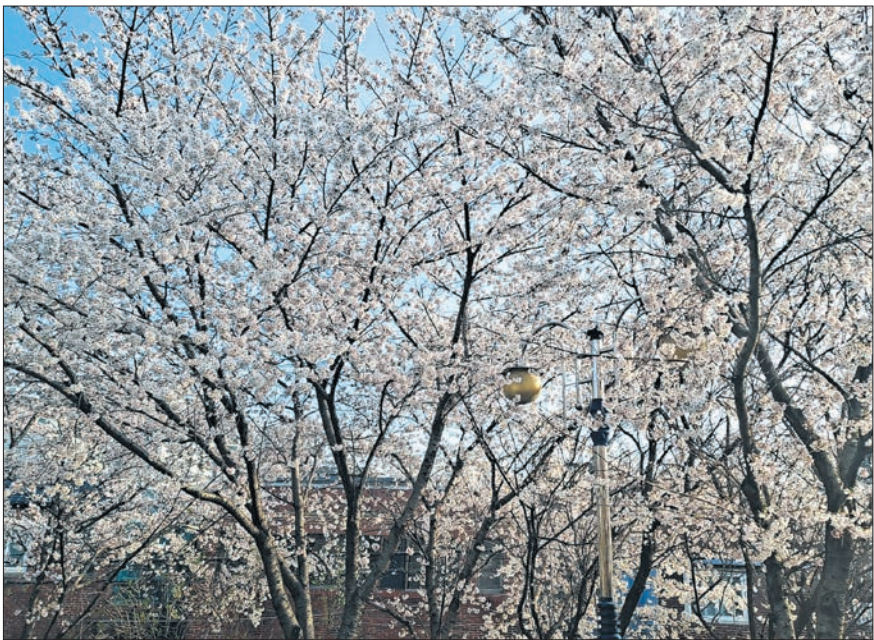
처음 여행이라는 주제를 잡았을 때는 어떻게 재미있고 알찬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 그러나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 만난 새로운 문화와 음식들, 관광 명소에 대해 신이 나 떠들 때, 그 저 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 시간 옆 강의실에서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열기가 대단했다.

나흘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치 여행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많은 추억이 쌓였다. 정이 들어서 사서 선생님이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번 독서교실에 오지 않았던 친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독서교실에 잇달아 참여한 친구도 기억이 난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도서관과 사서가 더 가깝게 느껴졌길 바라며, 다음 독서교실에도 수다쟁이 친구들과 함께하길 기대한다.



신비 용학도서관 사서

빛보다 빠른 꼬부기 (이병승/ 살림어린이/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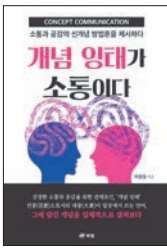
꼬부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뒤달렸음을 밝힌다. 꼬부기는 엄마를 만난 후, 부모 마음에 드는 아이보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엄마에게 가기로 한 날, 아빠도 이사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평소라면 어림없는 일이지만 꼬부기는 빛의 속도로

달려가 아빠를 붙잡는다. “가족이란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진짜 가족은 선택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신록 같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참모습을 찾고자 한다면 동화 ‘빛보다 빠른 꼬부기’를 만나보길 권한다.

우남희 학이사독서아카데미 회원

책 보따리



개념 잉태가 소통이다

이권호 지음/ 북림 펴냄

이권호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신작 ‘개념 잉태가 소통이다’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방법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 편향’이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언어의 토대가 되는 개념을 생명 활동인 잉태로 이해하는 게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잉태 소통’이라고 부른다.

이 책은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12가지 개념을 통해 잉태 소통의 사례를 살핀다. 저자는 개념이 대중매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인문학적 통찰과 버무린 해석을 내놓는다. 또한 소통이라는 개념 자체가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언어로서 개념을 생명을 잉태하는 태도로 이해하고 쓰면 소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237쪽, 1만4천800원.



마음시 6호

마음시 편집부 지음/ 마음사회 펴냄

사랑에 관한 시집으로 큰 인기를 끈 이정하 시인이 발행하는 격월간 시 전문 잡지 ‘마음시’ 6호가 출간됐다. 지난해 7월에 창간호가 나왔는데 벌써 6호다. 이번 마음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시가 많다. 특히 이기철, 서정운, 박상봉, 박금선, 차화분 등 대구 시인들의 시가 대거 실렸다.

마음을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가볍고 소박한 생활시 위주로 하루 한 편씩 읽도록 배치돼 있다. ‘하루 3분만 시를 생각해도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발상에서 나온 편집 방식이다. 이정하 시인은 “우리 사회가 갈수록 병들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이정하 시인은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자신을 돌보는 일에만 적극적”이라며 “이럴 때 시가 꼭 필요하며 시는 정신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강조한다. 101쪽, 8천원.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

문성훈 지음/ 사월의책 펴냄

현대사회는 가히 ‘경쟁사회’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사회 영역이 경쟁으로 점철돼 있다. 대학을 마치면 취업을 위해 경쟁하고, 사업가가 되어도 경쟁하고, 자영업자가 되어도 경쟁하고, 생산자든 판매자든 소비자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경쟁이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소수의 자유와 대다수의 부자유를 낳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경쟁 영역 자체를 축소하고 우리 사회를 협력적으로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자유주의 경쟁 사회를 넘어서 협력 사회로 나아가길 길을 모색하는 정치철학 책, ‘새로운 사회적 자유주의’라는 대안적 정치 이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한다. 악셀 호네트의 ‘인정 투쟁’ 등을 번역한 문성훈 서울여대 교수가 썼다. 596쪽, 2만9천원.

베스트 셀러

5월 둘째 주

순위	책명	저자	출판사
1	흔한남매 10	흔한남매	미래에아이세움
2	작별인사	김영하	북복서가
3	불편한 편의점 40만부 기념 벚꽃 에디션	김호연	나무영의자
4	문재인의 위로	문재인	더루빈
5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4	히로시마 레이코	길벗스쿨
6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	포레스트북스
7	2022 제13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임솔아	문학동네
8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	정태익	리더스북
9	컬러에 몰들다	밥 햄블리	리드리드출판
10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열림원

※ 교보문고 제공

법인부동산

수 성 구

최신부동산(주)무명선, 수성741-0070(2020-2017-00216)

★펜트하우스임대★

범어4동, 빌라보 2차 54, 첫입주
지하철 역세권 신축아파트
053)741-0070

(남)경동부동산(한성, 수성166-0577(16-3342)

월9천출50억인수가

대4,270㎡, 건12,600㎡
통상가 (보15억, 용자120억)
1666-0577

현 커피숍 급매매

대지2,148㎡, 건1480㎡, 당650만
10억인수가, 임대가능, 보1억
월1,000만, 권리금無 1666-0577

★나대지 급매매

대지606㎡, 건265㎡, 9억5천
당520만 15m도로점
1666-0577

침산동 최요지

아파트 상가
급매, 1층50㎡, 2층330㎡, 커피숍 및
프랜차이즈 최적지, 17억5천
용80%가능 1666-0577

남산동 나대지 급매

대지330㎡, 건125㎡, 신축하기 좋은
부지, 재개발 지역투자, 13억7천
용80%가능 1666-0577

신천동 최요지상가

부지 대1,285㎡
당3,300만, 대도로변점
인근대단지(대)단지 1666-0577

수성구 전면 좋은

상가부지 대1214㎡, 당1900
만, 아파트 도로점
네모반듯한당 1666-0577

일반부동산

북 구

■더블라지공인(김태동, 북구)가15-2290

스크린 운영상가 건물

580㎡, 최신8대, 매출4천이상
인수9억, 오토운영
순수익 32% 010-7437-5535

달 서 구

■유성부동산(김기현, 달서27280-2019-00205

성서 공장 매매

500, 당580만
2100, 당550만, 기계공장, 고8M
호이스트 010-3502-7932

■동우부동산(류진수, 달서27280-2018-00152

★창녕 모텔급매★

보9천 4430, 직영시보4천 4천만원
매9억5천 010-9995-2299

계대동문앞 원룸

대65, 8, 건112, 12가구, 보2500
공실無, 매매6억
010-4507-7849

동 구

■모두부동산(안근희, 동구27140-2020-00130

단층 상가 신축

대188㎡
당8억8천
053)942-4080

■스타넷대공인(김태호, 동구27140-2020-00009

★동대구 I·C 금★

8차선점, 137", 자연녹지
당1150만원 010-5298-3557

■금상부동산(홍세호, 동구27140-2018-00149

동촌유원지최고요지

대형모텔 2,376㎡
3.3㎡당1,800만원 053)984-3450

■금탑부동산(백정재, 동구27140-2016-00033

신축창고 팔공I·C 10

면적다양 대출확실
상당환영 053)964-4849

수 성 구

■유명공인(박성현, 수성27280-2016-00126

월5500만

출, 100억(보10억)
대출70억 안고)
지하철 역세권, 명품브랜드, 프랜
차이즈, 최고상권, 유동인구 최상
수성구요지 010-3701-0772

월4680만출 총150억

(대출80%可)
수성구 통상가, 고급 (대)일점지역
상업지역, 건4982㎡, 프랜차이즈, 학원
대기업, 핵심요지 010-3701-0772

월1100만출, 매35억

대지628㎡, 건물1,256㎡
프랜차이즈, 학원, 사무실, 대단지
아파트, 상권좋은 010-3701-0772

■라디스트레프노유전수성27280-2017-00196

월350출, 7억

1층 68㎡
세븐편의점, 최요지 수성구 역세권
10월입주 구분상가, 보1억+용4억
5000안고 053)768-9000

월950출, 20억

대522㎡, 건1295㎡
수성구 코너 APT대단지 상권
식당, 요양복지타운, 학원
보2억+용15억안고 053)768-9000

■동진부동산(권영철, 수성)가16-3703

매37억

보1억4천
용21억, 14억6천인수
수성구 코너
5층 건물 010-3509-4725

월900만출

대지 넓음 010-3509-4725

매60억

보3억2천
용38억
인수, 월2018만출
달구별대로 코너
010-3509-4725

매46억5천

보1억5천
용24억
인수, 월900만출
범어동 대로코너
개발호재도 010-3509-4725

동남부동산(沈家慶, 수성761-7501(16-1501)

대로점 코너 빌딩

대576㎡, 건3,890㎡, 상업지역
보10억, 월2,700
010-2714-1155

수성구 역세권 4층 상

가 대162㎡, 건540㎡, 역세권
보1억, 월460출, 공실無
용15억5천 010-2714-1155

※평화

시장 인근, 프랜차이즈
인수 하실분, 최고자리
통상가
대구역 인근
세, 용안고, 15억 010-9219-0481

★월1900, 용땅58억

상업지역600㎡, 병원최적, 대로코너점
역출입구, 대단지(대)입구, 유동인구多
향상권, 공실無, E/V 010-6630-8648

월1300

수성구, 유명프랜차이즈
역세권, 대로점, 매43억
수성구, 대로코너통상가
대단지(대)입구, 유명세인점
대220㎡, 매29억 010-6630-8648

월850

수성구, 유명프랜차이즈
역세권, 대로점, 매43억
수성구, 대로코너통상가
대단지(대)입구, 유명세인점
대220㎡, 매29억 010-6630-8648

월500

남구(대)대단지요코너상가
병원입점, 공실無, 매19억
수성구, 역세권대로통상가
유명상권, 공실無, 최신속
대210㎡, 매28억 010-6630-8648

월730

수성구, 유명프랜차이즈
역세권, 대로점, 매43억
수성구, 대로코너통상가
대단지(대)입구, 유명세인점
대220㎡, 매29억 010-6630-8648

월380출수성구상동

신축 상가주택, 종상향지역
대234㎡, 인수3억3천
053)762-6688

월350출, 수성구 상가 주택

신축, 대185㎡, 신축역세권, 2차선점
인수2억2천
053)762-6688

매14억5천

월955출남구통상가

6차선점, 대구교대역세권, 대327㎡
자부담18억5천만
053)762-6688

대광부동산(이정현, 수성1086442066(2020-2016-00006

2층통상가 월3,000

대750, 건550 ※대형브랜드입점
38억인수 053)214-8816

월2500최요지상가

삼면코너, 최고의 상권, 대209, 건1100
인수26억 053)742-8383

월3000최요지상가

삼면코너, 최고의 상권, 대209, 건1100
인수26억 053)742-8383

스타벅스+병원

대466㎡, 건903㎡, 코너, 월905만
최고의 상권 053)762-6100

월1300

수성구, 유명프랜차이즈
역세권, 대로점, 매43억
수성구, 대로코너통상가
대단지(대)입구, 유명세인점
대220㎡, 매29억 010-6630-8648

월730

수성구, 유명프랜차이즈
역세권, 대로점, 매43억
수성구, 대로코너통상가
대단지(대)입구, 유명세인점
대220㎡, 매29억 010-6630-8648

수성구 병원 약국

대로, 대단지, 공실無
금처분
세은안고 33억 010-5683-6100

회광부동산(최정우, 수성27280-2018-00150

★스타벅스 건물

매85억, 월2500만
수성구 최고상권 010-7668-5709

달 서 구

■다산들공인(박영수, 달서47830-2020-00005

공장 매매, 당120
당125만
나대지 117", 용땅8천만
계, 환관리, 531, 대형차입
당25만 054)955-4949

■한국공인중개사(영진, 달서47830-2020-00004

달성1,2차/국가산단

/테폴 공장매매 / 임대
공정전면
경력20년 010-4504-6532

■현대공인중개사(김영진, 달서47830-2020-00009

가장 자연녹지, 허가
562㎡(170), 당160만
27,000㎡(8,200)
당8만 원 010-6415-0051

카페부지

당8만 원 010-6415-0051

경 산 시

물류 창고 산업단지
반아월

공정 약촌, 대지700", 건물150"
매매, 당150만, 신축건물
010-9468-5022/ 010-3502-0322

고 령 군

■양자공인(권영희, 다산가-4244-000049

새봄맞이 특가 할인전!!

맛이 깊은 100% 국내산 재첩 진국

국내산 원조 하동 재첩 진국

정형만이 만든

국내산 재첩국

자연산

모두쇼핑 검색하세요

- ▶ 아침 저녁 국거리가 걱정하신분
- ▶ 입맛이 없으신분
- ▶ 해장이 필요하신분
- ▶ 속이 불편하신분
- ▶ 개운한 국물이 생각나는분

500g
기타 수산물가공품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1봉지 500g으로 두분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1세트 (10봉, 20인분)
62,800원 (5kg)

5천원 추가할인

2세트 (20봉, 40인분)
120,600원 (10kg)

제품 구입상담전화
(공휴일, 일요일주무가능) **1899-3570**

농협 301-3873-1472-31 주)모던산업
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가능

안동 생 약도라지를 통째로 갈아 정직하게 달인 진품

안동 진품 약도라지

자연 그대로의 도라지를 그대로 담아 최적의 맛과 영양을 위해 원료선별부터 세척, 가공, 제조 및 출고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과한 제품만 고객님께 보내드립니다.

신하게 달인 안동 생 약도라지(膏)

대용량 (240g) X 4병
파격할인가 **69,800원**

대용량(240g) 8병 구입시
추가할인 **128,000원**
사은품으로 도라지한 300g 추가증정! (한정수량)

100% 안동 생도라지를 통째로 먹기 좋게 만든 진품 약도라지입니다.
안동 생도라지에 달콤함을 더해 도라지 특유의 아린맛을 줄이고 진하여 달여 농축시킨 약도라지(膏)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에 타서 마시거나 생으로 1~2스푼 드시면 목이 편해집니다.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평소 목이 불편하신분
- 목이 간질간질 하시는분
-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분
- 평소 추위를 많이 타시는분
- 목이 자주 쉬는분
- 미세먼지 황사로 고생하시는분

안동 진품 약도라지 대용량 (240g) X 4병

제조원: 금산홍삼조합

모두쇼핑 검색하세요

제품 구입상담전화
(공휴일, 일요일주무가능) **1899-3570**

농협 301-3873-1472-31 주)모던산업
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가능

NH 지리산마천농협협동조합

원재료 및 함량

100% 국내산 흑염소와 국내산 고급재료 19종을 함께 48시간 동안 추출하여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물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석양 방목한 국내산 흑염소 지리산마천농협

100% 국내산 흑염소와 좋은 재료로 만든 "흑염소 진생"

2개월분 **69,800원** 특별 추가할인가 4개월분 **128,000원**

지리산마천농협 흑염소 진생

2개월분 (2박스 60포) 4개월분 (4박스 120포)
69,800원 128,000원

석양 방목 국내산 흑염소의 육질이 통째로 들어 청정지역의 깨끗한 기운을 고스란히 담은 제품으로 1일 1회 식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국내산 흑염소와 함께 좋은 재료들을 배합해 흡수율을 높였으며 진하고 담백하며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시간 추출하는 과정에서 지방을 걸러냈고 국내산 한약재를 배합하였기 때문에 흑염소 특유의 누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끝 맛이 깔끔하게 특징입니다. 입맛이 까다롭고 비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여성을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지리산 마천 농협에서 엄선된 재료와 탄실한 석양 방목 국내산 흑염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모두쇼핑 검색하세요

제품 구입상담전화
(공휴일, 일요일주무가능) **1899-3570**

농협 301-3873-1472-31 주)모던산업
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가능

정성가득 농약마늘

흑마늘의 힘을 느껴보세요!

흑마늘이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아시지요?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도 없는 마늘.. 가정에서 만들어 먹자니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정성가득 발효 흑마늘은 첨가물 없이 오로지 순수한 국내산 마늘로 만들었습니다. 발효를 거치면서 맛이 더 깊어져 어린이부터 중,장년 어르신들까지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마늘의 진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無설탕 無색소 無방부제 無항신료

1억원 제조물 책임보험

마늘 관련 언론보도

- 2002년 8월 'KBS 9시 뉴스' 우리토종 마늘 수급선 56배 효과
- 2003년 5월 'KBS 생노병사의 비밀' 마늘의 유용성 심층보도
- 2006년 8월 'KBS 뉴스'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 웰빙으로 건강백세
- 2007년 8월 'SBS 모닝와이드' 건강 100세의 비밀 한국의 힘 마늘이 책임진다.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선정

1세트(300g X 4통) 파격가: **99,800원**

2세트(300g X 8통) 파격가: **189,800원**

모두쇼핑 검색하세요

제품 구입상담전화
(공휴일, 일요일주무가능) **1899-3570**

농협 301-3873-1472-31 주)모던산업
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가능

중등교육 발전 기여 박오원·도규태 교사 '계명교사상'

(포항 흥해공고) (경대사대부고)

계명대 1996년 제정·67명에 시상
교육연구 박 교사 다양한 교재 개발
학생·진로지도도 교사 국제 IB 선도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는 13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제25회 계명교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수상자는 교육연구 분야에 박오원(62) 포항 흥해공업고등학교 교사, 학생·진로지도 분야에 도규태(51)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가 각각 선정됐다.

계명대 서성캠퍼스 본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신일희 계명대 총장과 박재선 경북대 사범대 부설고교 교장, 박기환 포항 흥해공업고 교감, 수상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제25회 계명교사상에는 대구경북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사 중 교육연구 분야에 12명, 학생·진로지도 분야에 7명,



계명대는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제25회 계명교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도규태 교사, 신일희 총장, 박오원 교사.

종교·사회봉사 분야에 1명 등 20명이 지원했다. 1차 심사는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의 중등교육과장, 계명대 대학원장과 인성교육원장 등이 맡았다. 2차 심사는 관련 분야의 계명대 교수 6명이 담당했다.

박오원 교사는 공업계 특색화고교에 근무하며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주도하고, 특성화고 운영사례집과 주간 학교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교재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 인재 양성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선도적인 역

할을 했다.

도규태 교사는 21년간 진로·진학 상담 및 특강, 멘토링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국제 바칼로레아(IB)의 새로운 교육 방향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중등교육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틀이고 바탕이다. 중등교육이라는 기초 위에 고등교육이 세워지는 만큼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계명대는 중등교육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계명교사상을 제정해 지금까지 시상하고 있다”고 했다.

계명교사상은 1996년 제정돼 지금까지 대구경북 교사 67명에 대해 시상했다. 대구경북 중등교육기관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계명교사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만원과 상패가, 재직 학교에는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서광호 기자 kozmo@imaeil.com



매일타리더스아카데미 11기, 프로야구 단체 관람

매일타리더스아카데미 11기 동기회

(회장 이기환 거한건설 대표)는 12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가족들과 함께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가정의 달 행사를 가졌다.



대구가톨릭대 '창조융합아카데미' 입학식

대구가톨릭대학교 창조융합아카데미(원장 전국)는 12일

대구 감삼동 캠퍼스에서 김현기 부총장, 이동환(취대후 대표) 2021 후기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전기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경북신보·KB국민은행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경북신용보증재단과 KB국민은행

행은 1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경북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원고 동창회 '개교100주년' 맞아 한라산 산행 대회

대구상원고등학교(전 대구상고)

는 최근 개교 100주년 주요 행사 계획에 따라 대구총동창회, 재경동창회, 재부동창회, 유진권 교장 및 교사 등과 함께 한라산 산행대회를 개최했다.



부동산원-세계은행 협약 개도구 부동산 정책 지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세계은행(WB)과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상록봉사단 환경지킴이 활동

공무원 연금공단(이사장 황서중) 대구지부는 대구경북 지역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릴레이 환경지킴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롯데벤처스 동남아 진출 한국 청년 투자 지원

대우세계경영연구회(회장 장병주)와 롯데벤처스(대표 전영민)는 10일 동남아 지역에서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글로벌청년사업가(GYBM) 양성과정 출신의 한국 청년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에서 '제6기 대구신세계 지역인재 희망장학금 전달식'을 기증받고 전달식을 가졌다.

대구서부교육청 '대구신세계 희망장학금' 전달식

중학생 15명 100만원씩 지원

대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구)은 10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에서 대구서부교육지원청,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대구신세계 등 세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대구신세계 지역인재 희망장학금'을 기증받고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희망장학금은 지역 내 아동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직법인 대구신세계'에서 마련된 재원으로 운영되고, 평소 어린이재단의 다양한 후원·결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거주 취약계층 가구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해당 장학금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관내 중학생 1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천500만원이 지원된다.

이철구 교육장은 “장학금을 전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 지역 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번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는 동기 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채근 기자 mincho@imaeil.com



12일 대구가톨릭대가 마련한 한-칠레 수교 60주년 행사. 앞줄 오른쪽 네 번째가 구스타보 곤잘레스 주한 칠레 대리대사.

대구가톨릭대 한-칠레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우동기)는 12일 교내 성당에서 한국-칠레 수교 6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구스타보 곤잘레스(Gustavo Gonzales) 주한 칠레 대리대사, 루카스 파베스(Lucas Pavez) 주한 칠레 영사, 그리셀 가린(Griselle Garin) 박사가 대구가톨릭대를 방문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그리셀 박사는 대구가톨릭대 스페인 어중남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칠레의 문학과 라틴 아메리카 예술사'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구스타보 대리대사는 칠레의 작가 가브리엘라 미스트랄(Gabriela Mistral)의 노벨문학상 수상 75주년을 기념해 칠레국립도서관이 발행한 '가브리엘 미스트랄 전집'을 대구가톨릭대에 기증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파라이소(Valparaiso) 교향청립대학을 비롯해 칠레 대학들과의 교류를 위한 협의도 이어졌다. 향후 교환학생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광호 기자



청도공영사업공사는 11일 어려운 이웃에게 농산물 식재료를 전달하는 '사랑가득 건강먹거리 나눔봉사' 활동을 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사회공헌팀 신설 첫 나눔 봉사

농산물 식재료 등 후원받아 노인복지시설·기관에 전달

경북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박진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1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농산물 식재료를 전달하는 '사랑가득 건강먹거리 나눔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공영사업공사가 지방공기업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사회공헌팀을 신설하고 나눔을 실천한 첫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번 나눔에는 청도가 고향인 부산청과물(대표 양부숙)로부터 고구마, 감자,

양파 등 500만원 상당의 농산물 식재료를 후원받아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과 기관에 전달했다.

또한 이날 청도군청 직원과 (사)대한민속소흥거루기협회, 우주, 심판, 조교사 등 50여 명이 앞으로 공영사업공사의 지역사회 상생 봉사활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 관계자는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노진규 기자 jgroh@imaeil.com



김천시평생교육원이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김천의 재발견, 찾아가는 역사탐방' 프로그램.

김천시평생교육원 결혼이민자와 김천 역사탐방

'김천의 재발견' 직지사 등 찾아

경북 김천시평생교육원이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김천의 재발견, 찾아가는 역사탐방'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 있다.

김천시평생교육원은 결혼이민자들에게 김천을 올바르게 알리고 지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4월 14일 개강해 오는 7월 말까지 모두 8회 운영한다.

'김천의 재발견, 찾아가는 역사탐방' 세 번째 날인 12일에는 참여자 10여 명이 천년고찰 직지사를 방문해 숨겨진 스토리와 사명대사공원, 김천의 랜드마크인 평화의 탑 앞에서 전통 한복 체험을 하며 김천의 역사 이야기 속으로 흠뻑 빠져들었다.

김경하 김천시평생교육원장은 “앞으로 남은 교육도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일 기자 hyunil@imaeil.com

한울본부 이웃사랑 기부금 7억1천300만원 전달

직원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희망 나눔 복지기관 지원·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사진 왼쪽)는 12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행복나눔 기부금 7억1천300만원을 전달했다.

한울본부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2억3천800만원은 지역 우수 봉사단체 활동, 복지기관 및 시설의 운영 프로그램에 지원하며, 나머지 4억

7천500만원은 취약계층 대상 사랑의 집수리 및 방역소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은 “모두가 어려운 요즘,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으로 이웃에 희망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울본부는 주위의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다채로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 seagull@imaeil.com



정연준 경산시태권도협회장 대회 개최



정연준 경산시태권도협회장은 14, 15일 양일간 경산공설시장 성설무대에서 제17회 경산시협회장배 태권도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참가 선수 등이 경산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음식점을 이용해 서민경제 살리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열린다.

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여환숙 칠곡관광해설사 첫 시집 ‘나’ 출간



경북 칠곡군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는 여환숙(72) 씨가 최근 첫 번째 시집 ‘나(me)’를 펴냈다.

여 시인은 “100세 시대를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지난 삶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시집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시집은 5부로 나눠 총 70여 편이 수록됐다. 구상문학관에 근무하며 구상 시인을 통해 맺은 인연, 안태고향인 낙동강 칠백리 왜관읍,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며 만난 전몰 미망인들의 아픔과 잔혹한 전쟁사 등을 시어로 표현했다.

여 시인은 19일 칠곡문화원에서 출판기념회도 열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lily@imaeil.com



고산도서관 7년 연속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

‘고산이 품은 비밀의 구릉, 성산’ 주제

(재)수성문화재단 수성구립 고산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2016년부터 7년 연속 선정됐다.

‘길 위의 인문학’은 공공·대학도서관을 거점으로 독서와 강연·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에게 인문학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학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향토 자료를 펴내고 있는 고산도서관은 2020년부터 ‘길 위의 인문학’ 사업과 연계해 ‘고산(孤山), 강을 따라 흐르는 생명’ (2020), ‘고산, 찬란한 고대 압록(押鵲)의 기억’ (2021) 등 2권의 책을 발간해 지역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올해는 그 연장선상에서 ‘고산이 품은 비밀의 구릉, 성산(城山)’이라는 주제로 유서 깊은 고산의 역사와 문화를 다각도로 재구성해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성산은 평야 한가운데 우뚝 서 토성과 고분은 물론 봉수대와 와요지 등 유물과 유적을 품고 있어 학술적·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 고산도서관은 성산의 산하와 유적 그리고 위상과 역할이라는 3가지 주제로 나뉜 전문가 강연과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산 지역의 지형과 지세·지명과 산성·통신수단 등을 이해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고산도서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3)668-1908.

신종연 기자 shyoun3@imaeil.com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용 조성물’ 아리바이오사에 기술이전



서진수 교수



고영훈 박사



최장기 연구원



이혜인 씨

DGIST·한의학연구원 공동 보유 기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뇌과학과 서진수 교수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고영훈 박사팀과 공동 보유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용 조성물’에 대해 ㈜아리바이오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술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APOE4 유전형 특이적 보호 효과를 보이는 조성물을 개발하는 것으로 인간 역분화 줄기세포 APOE4 알츠하이머 모델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제거 효과가 관찰됐다.

최근 미국 FDA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된 ‘아두카누맙’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기술이전으로 앞으로 임상 실험을 통해 효능이 검증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치매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진수 교수는 “인간 알츠하이머 치매 모델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식균 작용에 우수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치료제 개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성우 기자 swkim@imaeil.com



남구청-물베기상인회 ‘명품 골목상권 조성사업’ 업무협약

대명2동 물베기 골목 전담 인력 배치 연말까지 총사업비 7억5천만원 지원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대구시상인회관에서 대구 남구청, 물베기상인회와 지역을 대표하는 골목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2021년 명품 골목상권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재단에서는 사업 기간 동안 대명2동 물베기 골목 전담 인력 배치, 남구청에서는 행정 지원을 한다.

지난 2월 28일 재단에서 진행된 ‘대구광역시 2021년 명품 골목상권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남구 물베기상인회가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7억5천만원,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다.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덕역 사이의 물베기 골목은 현재 약 130개의 식음료, 서비스업종 등 상가가 밀집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거리 환경 조성,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상인 역량 강화, 물베기축제 등 특화사업과 상권 자생력을 강화할 수의 사업을 계획 중이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오늘의 운세 5월 14일(음력 4월 14일) 다사주 인스타그램 제공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36년생 자녀에게 행운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행복해지는 날이랍니다. ▶48년생 초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0년생 오래된 지인을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72년생 현실적인 안목으로 먼 미래를 그려 보세요. ▶84년생 어렵고 힘든 문제는 위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세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7년생 인격을 더욱 높게 쌓는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평화롭고 안정감 있게 가지세요. ▶49년생 자녀들도 편안하고, 하는 일에 성취도 있으니 지난 시간에 연연하지 마세요. ▶61년생 다소 서운했던 지인한테 기쁨이 있으니 함께 기뻐하며서 관계를 회복해 보세요. ▶74년생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85년생 한순간의 실수로 공동 탐이 무너지지 않으니 명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해요.	▶38년생 오랜 지인들과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성의를 보이면 그 마음이 전달될 거예요. ▶50년생 피로가 누적됐다면 가까운 곳으로 지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와도 힐링이 됩니다. ▶62년생 두려움과 위기에 무너지지 말고 직면해 보세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4년생 막연하게 생각하면 험난할 수 있어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86년생 주변 상황의 흐름을 살펴보고 관찰하세요.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39년생 오늘의 기운이 내일까지 영향을 주니 밑거름이 될 수 있게 긍정의 힘을 내세요. ▶51년생 곤란하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63년생 과유불급인 날입니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니 정도를 넘어서는 건 안 됩니다. ▶75년생 대립하면서 자존심 싸움이 깊어집니다. 온화한 속에서 덕이 쌓이게 될 거예요. ▶87년생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 못 하면 권위가 실추되니 명확하게 구분해야 해요.	▶40년생 익숙하지 않은 일에 관심 갖는 것보다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고 노력하세요. ▶52년생 사건 사고 구설수가 있어요. 모든 일을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침착함을 가져주세요. ▶64년생 반복되는 똑같은 의견으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네요. 의견을 잘 들어주세요. ▶76년생 능력 이상의 일로 곤란함을 겪게 되네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해요. ▶88년생 어깨의 짐이 무겁습니다. 버거운 공정적인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41년생 구름이 지나가고 태양이 비치니 기쁨이 있고 행운의 선물도 있는 좋은 날이에요. ▶53년생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중요해요. 대화를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전하세요. ▶65년생 처음에 방해도 있고 스트레스 많지만 정성껏 진행하면 일이 술술 풀립니다. ▶77년생 가장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세요.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89년생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도움을 청해 온다면 정성껏 도와주세요. 인력이 쌓일 거예요.	▶42년생 오늘은 현실적인 안목이 좋아집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고민하지 말고 잡으세요. ▶54년생 환경이나 주변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을 나를 살펴봐야 된답니다. ▶66년생 일을 해결해도 또 일이 기다리네요. 시원한 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78년생 조금 더 노력하면서 세밀하게 살펴보세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90년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세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43년생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고 포용하는 리더 역할이 필요하답니다. 권위를 보여주세요. ▶55년생 자녀 문제 공적인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다 함께 협동하는 일을 해보세요. ▶68년생 내 얼굴이 복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여유와 희망을 가지면 기쁨이 생깁니다. ▶79년생 나의 말 한마디에 큰 파장이 생겨요. 오늘은 임을 무겁게 하고 겸손해져야 해요. ▶91년생 상황을 방지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미루지 말고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44년생 생각만으론 이룰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56년생 오늘은 공적인 일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다 함께 협동하는 일을 해보세요. ▶68년생 내 얼굴이 복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여유와 희망을 가지면 기쁨이 생깁니다. ▶79년생 나의 말 한마디에 큰 파장이 생겨요. 오늘은 임을 무겁게 하고 겸손해져야 해요. ▶91년생 상황을 방지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미루지 말고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45년생 금전운과 생각지 못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합심하면 더 큰 일을 이루게 돼요. ▶57년생 그동안 힘들게 하던 일이 해결될 기미를 보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보세요. ▶69년생 들어오는 것도 많고 나가는 것도 많은 하루네요. 금전 관리는 철저하게 거릅니다. ▶81년생 부러워 어렵더라도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어디서인가 큰 선물을 받을 거예요. ▶93년생 오늘은 지나치게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어려움에 겪을 수 있으니 금물이에요.	▶46년생 가까운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네요. 명쾌하고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답니다. 단호한 결단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70년생 조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성실함으로 승부하면 좋게 마무리될 거랍니다. ▶82년생 새롭게 출발하려면 두려움은 불편한 소리는 무시하고 묵묵히 임하는 게 좋아요. ▶94년생 불행했던 일이 부드럽게 되돌아온다면 운이 좋아질 거예요. ▶95년생 새롭고 희망찬 기운이 들어옵니다. 말썽 생기는 일이나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47년생 새롭게 시작할 일은 큰 이득이 없네요.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59년생 애정 관계에선 배려심이 필요해요. 작은 이벤트를 통해 즐거움을 더해주세요. ▶71년생 경험 많고 능력이 있지만 겸손하게 먼저 고개 숙여 준다면 명예를 얻게 됩니다. ▶83년생 고민하던 문제가 점차 풀리고 저절로 좋은 일이 열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95년생 새롭고 희망찬 기운이 들어옵니다. 말썽 생기는 일이나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5월 15일(음력 4월 15일)

▶36년생 하면 안 되는 것을 한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네요. 마음 없으니 용기 내세요. ▶48년생 가족, 지인들과 대화할 때 속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소통이 잘 됩니다. ▶60년생 할 일도 많고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가 많네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72년생 혼자서 억지로 끌고 가지 마세요. 계속 힘겨우니 협력자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84년생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진실한 마음이라면 소통될 거예요.	▶37년생 내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면 대립이 커지니 상대방 방식의 장점을 보세요. ▶49년생 열정과 욕망은 있지만 몸이 무겁습니다. 손리에 맞게 건강관리도 필요하답니다. ▶61년생 생각지 못한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기쁨이 찾아오니 희망을 가지세요. ▶73년생 과도한 행태가 오히려 이익이 없어 불리해요. 마음을 절제하고 평온하게 가져가세요. ▶85년생 사소한 문제를 외부로 자주 유출시켜 예민해지면 안 돼요. 대범해져야 합니다.	▶38년생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가족과 오랜 지인들이 험이 되니 상의를 해 보세요. ▶50년생 명예와 권위를 얻을 수 있지만 내 스스로는 권위보다 온화함을 보여야 해요. ▶62년생 무언가 부족했다고 생각한 일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 미소가 가득하네요. ▶74년생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의욕이 없어. 도와줄 귀인이 있으니 위촉되지 마세요. ▶86년생 사소한 문제를 외부로 자주 유출시켜 예민해지면 안 돼요. 대범해져야 합니다.	▶39년생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주변을 둘러보세요. 행운은 나의 편이랍니다. ▶51년생 결과부터 생각하지 마세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결과는 좋아져요. ▶63년생 할 일은 많은데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네요. 마음을 한결 평온하게 가져 보세요. ▶75년생 마운 사람이 험하게 모습을 보이는데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87년생 사소한 정성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치중하면 손해를 봅니다.	▶40년생 대인관계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신중하게 바라보세요. 지혜가 생길 거예요. ▶52년생 피곤해도 모임이 있다면 꾸준히 나가 보세요. 이득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64년생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함께 해 왔던 사람들과 움직이세요. ▶76년생 오늘을 당할 수 있는 날이네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게 좋겠어요. ▶88년생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고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어요. 함께하면 좋아요.	▶41년생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거나 관심받을 겁니다. 마음을 여유 있게 풀어주세요. ▶53년생 사업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계약이나 만남이 있어요. 금전적인 행운이 있습니다. ▶65년생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보십시오. ▶77년생 오늘은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날이네요.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게 좋겠어요. ▶89년생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되고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어요. 함께하면 좋아요.	▶42년생 편안한 하루는 나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유 있게 풀어주세요. ▶54년생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 값어치를 많이 높일 수 있어요. 언행에 신경 써 보세요. ▶66년생 돈 거래는 금물입니다. ▶78년생 할 일이 있다면 그냥 준다는 생각이 필요해요. ▶80년생 불필요한 모임을 피하세요. ▶92년생 중시 역할을 하는 리더라면 금전 부분에서 노력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43년생 소중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을 편하게 대해주세요. ▶55년생 생각지 못한 금전운이 있지만 소문나지 마세요. 주변의 질투를 받을 수 있어요. ▶67년생 무언가 바뀔 일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과 모여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79년생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긍정적인 변화만이 걱정 마세요. ▶91년생 중시 역할을 하는 리더라면 금전 부분에서 노력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44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은 위기를 만듭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야 해요. ▶56년생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하루가 되겠네요. 목표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68년생 경쟁 관계라도 상대방 장점을 인정해 주세요. ▶80년생 남의 말만 믿고 무조건 진행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세밀하게 확인해야 해요. ▶92년생 생 바라는 일이 아직은 성사되지 않지만 곧 이루어질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45년생 마음이 울적하고 쓸쓸하면 기분 전환으로 가벼운 여행을 떠나 보는 건 어떨까요. ▶57년생 사람 관계는 정에 이끌려 묶어있으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69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어요. 오늘은 사람을 멀리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81년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어요. 조금 더 준비하고 내실을 다지세요. ▶93년생 생 변화를 쥐어 바꾸는 건 불리하지만 금전운이 있으니 지금 일에 집중해 보세요.	▶46년생 오늘 운기는 좋답니다. 다만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면 사람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58년생 주목받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시기 질투가 있으니 융통성이 필요해요. ▶70년생 그동안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좌했다면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랍니다. ▶82년생 내가 도와주고 도움도 받지 않아요. ▶94년생 생 오늘은 나를 드러내고 인기를 얻는 날이네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47년생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오늘을 잠시 휴식을 취해 보세요. ▶59년생 재밌는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지만 소비성 지출이 많으니 관리가 필요해요. ▶71년생 이동할 때도 좋은 날입니다. 만약 이동해야 할 곳이 있다면 움직여주세요. ▶83년생 사람 관계가 시원하지 않아요. 소통이 잘 안 되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보세요. ▶95년생 애정운은 서로 합심하고 인기를 얻는 날이네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	--	--	---	--	--	---	---	--	---	---	--

TV 영화를 보자 EBS1 '조강지처 클럽' 14일 오후 10시 50분



EBS1 TV 세계의 명화 '조강지처 클럽'이 14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

신시아, 애니(다이안 키톤 분), 브랜다(베트 미들러 분), 엘리스(골디 혼 분)는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 사이다. 애니와 브랜다, 엘리스는 그중 가장 크게 성공할 것 같았던 신시아가 남편과 이혼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시아의 장례식장에서 재회한다.

이들의 남편들도 모두 젊은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자신들의 인생 역시 신시아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느낀다. 이들은 남편에 대한 복수심과 인생의 회오리에 휩쓸린다. 그러다 신시아가 생전에 보낸 편지를 계기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재회

중년 여성들 현실 자각으로

학대받는 여성 돕게 되고...

로 세 사람은 각성한다. 이들은 정의 실현을 목표로 남편들에게 그동안의 고통을 되갚을 방법을 찾아 '조강지처 클럽'을 만들게 된다.

세 사람은 남편들을 응징하기 위해 뭉치지만, 곧 복수나 앙갚음이 해답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들은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에게 충실해야 진정한 홀로서기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당당히 자신들의 삶을 찾고 더 나아가 학대받는 여성들을 돕는 '신시아 여성센터'를 건립, 친구를 기리게 된다.

개봉 후 박스 오피스에서 상당한 히트를 치면서 주로 중년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은 작품이다.

작품의 대미를 장식하는 주제곡 'You Don't Own Me'와 함께 주조연들의 열연에 힘입어 전미 비평가 협회상 앙상블상을 수상했다.

문화부 이선헌 tvbox@maeil.com

작명전문
아기이름 · 개명
우리나라 대표 이름연구소
40년 전통

콘이름

053-241-3456
교보문고 옆 미도빌딩 9층 **콘이름**

cpbc
FM 93.1 MHz
대구교통방송

생명은 사랑입니다
토 오후 5시
每日新聞 뉴스
낮 12시

TV 프로그램

● 14일 (토요일) ●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50 남부의 창 8:3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걸어서 세계속으로 10:30 생로병사의 비밀(재) 11:20 팔도밤산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국악 한마당	5: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6:05 농친 애는 따라잡기(재) 25 박원숙의 같이 삼시디(재) 7:30 사정남 귀는 당나귀 귀(재) 9:05 살림하는 남자들(재) 10:20 영화가 좋다 11:30 자본주의 학교(재)	5:00 우리가족 우리문화 6:00 기본 좋은 날(재) 7:00 MBC 뉴스투데이 20 통일전망대 8:00 메가드롬 20 모두의 TV 9:20 예산추적 프로젝트 10:00 문화요 30 TV 메디컬 악순 스페셜 11:30 전국시대 스페셜 12:20 MBC 뉴스 30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재)	5:00 팔도강산 GoGo(재) 6:00 모닝와이드 7:15 마법여우 주비 30 EBS 비즈니스 리부 웨데이 스쿨 8:00 상상 고향별곡 9:40 마음으로 보는 세상 10:00 TBC클라닉 건강 365 11:00 전국톱10 가요쇼 12:10 SBS 뉴스 20 미운 우리새끼(재)	5:00 세계 자연문화유산(1) 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재) 6:00 정글 플래닛 30 EBS 비즈니스 리부 웨데이 스쿨 7:00 꼬마버스 타요(종합) 30 동그라심의 버네새(재) 4:15 띠파뽀 띠파뽀(종합) 30 모여라 당동명 9:00 출동! 슈퍼함스(종합) 30 미니특공대 애니멀트론 10:1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종합) 11:45 최고의 요리비결(종합) 2:00 최고의 요리비결 공방 3: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3:3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4:10 글로벌 특선다큐 5:00 건축탐구 집(재) 50 건축의 맛과 사이를 다아(재) 6:40 한국기행(종합) 8:15 바닷가 사람들(재) 9:05 국한작업 55 명의(재) 10:50 세계의 명화 (조강지처 클럽) (휴 필스 감독, 골디 혼 베트 미들러 출연) 12:45 EBS 다큐프라임(재)
1:05 사람의 가족 2:00 상상꾸러기 푸다 15 뽀빠이 소녀 날자 30 이웃집 찰스(재) 3:20 시사 작곡(재) 4:10 다큐 인사이트(재) 5: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동물의 왕국(재)	1:05 월화드라마 (봄은 단심)(재) 3:35 주말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재) 5:00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싱어	2:00 금토드라마 (내일)(재) 3:15 쇼! 음악중심 4:3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2:10 월화드라마 (우리는 오늘부터)(재) 4:30 SBS 뉴스 40 금토드라마 (여가인 마이 라이프)(재)	
6:00 동행 55 불평해도 괜찮아3 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건강철의 동네 한 바퀴 8:05 동물극장 단짝	6:10 불후의 명곡 8:00 주말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6:25 놀면 뭐하니? 7:55 MBC 뉴스데스크 8:35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40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재)	6:00 편견과 공치리3 랜덤박스 8:00 SBS 8뉴스 20 TBC 8뉴스 35 판타스틱 패밀리 핫클럽 40 SBS 스페셜 영키 시티	12:45 EBS 다큐프라임(재)
9: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0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10:25 청춘아구단 11:05 생방송 심야토론 12:1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5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15 KBS 스포츠 중계식 2:45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3:45 아침마당(재)	9:20 살림하는 남자들 10:35 빠괴파 11:55 우리끼리 작전타임(재) 1:05 국민영수증(재)	9:55 금토드라마 (내일) 11:10 전지적 참견 시점 12:45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재) 2:00 금토드라마 (내일)(재)	10:00 금토드라마 (여가인 마이 라이프) 11:10 그것이 알고싶다 12:25 특집 다큐 K-콘텐츠, 색에 미치다 1:35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재) 3:05 전국톱10 가요쇼(재) 4:05 테마 스페셜(재)	

● 15일 (일요일) ●

KBS1	KBS2	MBC	TBC/SBS	EBS1
5:0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백투더무제(재)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나의 살던 고향은(재) 15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7:15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재) 8: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일요진단 라이브 9:05 노래가 좋아 10:00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 11:00 TV쇼 진품명품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전국노래자랑	5:00 TV쇼 진품명품(재) 6:05 생생정보 스페셜 7:00 KBS 재난방송센터 10 영상앨범산 40 국민동요 프로젝트 아기싱어(재) 8:40 빠괴파(재) 10:00 1박 2일(재) 11:3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5:00 푸른백세 여영자 바다야 6:00 기본 좋은 날(재) 7:00 MBC 뉴스 10 앙코르 MBC 다큐프라임 8:05 대구MBC 시사특목 9:00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 10:40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11:55 MBC 뉴스 12:05 다큐M	5:00 좋은아침(재) 6:00 SBS 뉴스 10 좋은 생명이야 7:10 헬로커피 12 봄바 25 수퍼다이너 40 엘리자 건다 50 TBC 시티멘터리 도시 이야기(재) 8:35 선거ii 수다 9:30 TV동물농장 10:55 TBC 스포츠 불링 12:15 집사부일체(재)	5:00 문화유산 코리아 10 하늘에서 본 한반도 40 배움의 꽃피는 나무(재) 6:10 아주 특별한 기행-한국을 담다 7:00 나눈 0700(재) 30 투로와 무지개 왕국 8:00 빅 블루(종합) 30 모여라 당동명 9:00 하프와 친구들(종합) 30 한글용사 이야기(종합) 10:00 자이언트 펭TV 스페셜 11:00 국한작업(재) 50 춤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 12:20 장학퀴즈-드림서클 1:20 일요시네마 (스콜 오브 락)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 잭 블랙, 마이크 화이트 출연) 3:20 EBS 비즈니스 리부 원데이 스쿨(재) 4:10 세상을 바꿨고 4:30 글로벌 특선다큐 5:30 세계테마기행(종합) 9:35 한국의 놀라움(종합) 10:50 한국영화특선 (조선명장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김석윤 감독, 김명민, 오달수 출연) EBS 다큐프라임(재)
1:20 스카우트 3.0 2:10 2022 프로축구 K리그 수원FC:제주 4:20 팔도밤산(재) 5: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동물의 왕국	1:05 수목드라마 (내에게 가는 속도 493km)(재) 3:35 주말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재) 5:00 사정남 귀는 당나귀 귀	1:05 전국시대 스페셜 20 놀면 뭐하니? 스페셜 50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재) 4:05 안씨우연 다행이야 스페셜 5:00 불꽃버스터	1:20 골 때리는 외박(재) 2:30 금토드라마 (여가인 마이 라이프)(재) 3:40 SBS 뉴스 50 SBS 인기가요 5:00 런닝맨	
6:00 열린음악회 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이슈 토크쇼 함께 8:05 불평해도 괜찮아 3(재) 10 시사멘터리 추적	6:30 1박 2일 8:00 주말드라마 (현재는 아름다워)	6:10 복면가왕 7:50 MBC 뉴스데스크 8:25 지금부터, 쇼타임! 7회 요약본	6:30 집사부일체 8:00 SBS 8뉴스 30 TBC 8뉴스 45 맨 인 블랙박스	
9: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0 역사자널 그날 10:30 예설의 전당 11:20 환경스페셜(재) 12:1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동물극장 단짝(재) 1:15 사람의 가족(재)	9:20 자본주의 학교 10:50 우리끼리 작전타임 12:00 세상을 모든 다큐 5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10 KBS 재난방송센터(재)	9:00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재) 10:30 구해줘! 홈즈 12:20 MBC 네트워크특선 1:20 TV예술무대 스페셜	9:05 미운 우리 새끼 11:05 LOUD, 그 후 - THE NEW SX 12:15 검은 양 게임(재) 1:50 네트워크특선	

KBS 0531757-7321 MBC 0531740-9500 TBC 0531760-2000 EBS 1588-1580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위성TV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02-735-6511 스카이라이프 1588-3002 (주)이피지 021569-5995
※지면관계상 모든 채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스포츠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SBS 골프	SBS 스포츠
	12:00 청춘아구단 16:50 KBO리그 카툰:KT 24:00 ♥베이스볼 미니 (15일) 11:00 한국프로야구레전드10인 13:50 KBO리그 카툰:KT 18:30 ♥베이스볼 22:30 2022 세계육상 다이아몬드리그	10:00 베이스볼 투나잇 17:00 KBO리그 +NC : SSG 21:30 베이스볼 투나잇 (15일) 10:00 주니어미들급 4대구 통합 타이틀매치 14:00 KBO리그 NC : SSG 17:30 베이스볼 투나잇 22:30 2022 KBO리그 하이라이트	12:00 2022 KPGA NH투자증권 레디스 챔피언십 18:00 2022 KPGA NH투자증권 레디스 챔피언십 23:00 2022 KPGA NH투자증권 레디스 챔피언십 (15일) 11:00 2022 KPGA NH투자증권 레디스 챔피언십 16:00 2022 KPGA NH투자증권 레디스 챔피언십 20:00 2022 SG골프 더 매치 챔피언십 23:30 로테이션 게임	12:50 베이스볼S 16:50 2022 KBO리그 두산:삼성 24:30 송승민 국가대표 골 경기 모음 (15일) 11:30 21-22 ISU 쇼트트랙 월드컵 13:50 2022 KBO리그 두산:삼성 17:30 베이스볼S 24:00 베이스볼S 다이제스트
	OCN	스크린	SBS Biz	한국경제 TV
	12:00 그것만이 내세상 16:20 마스터 22:00 파라노말액티비티:넥스트오브닝 (15일) 12:20 엑시트 14:40 킹스맨:시크릿에이전트 19:40 자스티스리그 22:00 범죄도시	10:45 서약 17:05 리틀오브라벤지 21:05 실라:하드슨강의 기적 (15일) 11:25 테이큰 15:35 검객 19:55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22:10 건파우더밀크셰이크	10:00 한 권의 책 18:00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 23:00 이슈8작설 (15일) 10:00 이슈8작설 15:00 한문철의 블랙박스 20:00 대한민국 지친대선 23:30 필살기 교수외전	12:00 건강매거진 15:00 신형식 스페셜 22:00 혁신성장코리아 (15일) 12:00 건강매거진 15:00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18:00 신형식 스페셜 21:00 대박한국 선데이
미라마	KBS 드라마	MBC 드라마	SBS 드라마 Plus	YTN
	10:20 안영하세요 특급고민 16:00 이십세기첫-토요일 22:20 차트를 달리는 남자 (15일) 10:00 슈퍼맨이 돌아왔다 14:20 연애의 참견3 17:00 현재는 아름다워 22:10 살맛나는 남자들2	11:20 내일 16:50 호적메이트 20:00 나혼자산다 (15일) 11:30 내일 15:50 나혼자산다 20:00 전지적참견시점 23:00 지금부터, 쇼타임	10:5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7:40 미운 우리 새끼 23:10 여가인 마이 라이프 (15일) 11:2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6:10 골 때리는 외박 19:20 미운 우리 새끼 24:30 여가인 마이 라이프	10:00 뉴스와이드 15:50 뉴스와이드 20:50 YTN24 (15일) 10:00 뉴스와이드 15:50 뉴스와이드 19:50 YTN24 21:50 뉴스와이드
	MBN	TV조선	JTBC	채널A
	12:10 혼공, 조남호의 임시코드 18:10 MBN 뉴스와이드 21:20 국대는 국대다 (15일) 10:00 시사스페셜 15:20 국대는 국대다 19:30 MBN 종합뉴스 23:00 알토란	11:00 가적의 인생 15:20 개나리향당 23:00 화요일은 밤이 좋아 (15일) 11:50 개나리향당 베스트 16:40 우리 이혼했어요2 19:50 스타다큐 마이웨이 22:40 국가가 부른다	11:55 JTBC 이 시각 뉴스를 17:50 JTBC 뉴스룸 22:30 나의 해방일지 (15일) 11:55 JTBC 이 시각 뉴스를 15:50 아는 형님 19:40 뭉쳐야 찬다2 22:30 나의 해방일지	12:10 토요일 캠프쇼 15:50 강황부대2 21:10 신랑수업 (15일) 10: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16:20 오영영의 금쪽 상상수 19:00 뉴스A 23: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어린이·가족	투니버스	JEI재능TV	tvN	디스커버리
	10: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Z 16:00 땅구는 못말려 20:00 괴도키드1412 (15일) 11:00 이상한 과거가게 천천당 15:00 민피리 18:00 신비아파트:고스트볼의 비밀 20:00 총명명	11:00 바다탐험대 옥도넷 16:00 슈퍼맨 22:00 인싸가족 (15일) 12:00 포켓몬스터W Part5 16:00 도박V우주사냥2 20:30 웨이TV버라이어티 23:00 엑스기라운	12:00 어쩌다 사장2 17:30 유 퀴즈 온 더 블록 22:40 별동대 (15일) 11:30 우리들의 블루스 16:10 어쩌다 사장2 19:40 코미디빅리그 22:50 뜻밖의 여정	11:20 잠적 16:50 잠적 23:00 디스커버리 스페셜 (15일) 12:50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편 16:05 지구에 무슨 129? 베스트 19:05 현지에서 먹힐까? 중국편 23:00 디스커버리 스페셜
	cpbc TV	불교BTN TV	CGN TV	CTS 기독교TV
	11:00 가톨릭 돌레 특강 17:00 cpbc 주간종합 뉴스 21:00 평화를 위한 기도 (15일) 10:00 중세라이브 시즌2 15:00 황천엔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18:00 삼기기도 22:30 묵주기도	11:30 생활 속 열불수행 15:00 헌기 대선사 범암록 전통대법회 21:30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입자 (15일) 11:30 생활 속 열불수행 14:00 진영삼님의 지대방 18:00 자녀예배 22:00 광우삼님의 소나무 시즌3	11:00 구약의 세계로(오심스)2 16:2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23:30 성경의 삶 (15일) 11:3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3:5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6:50 전세 프랭클린의 부흥 21:0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12:00 하일RTA 어린이영어예배 15:00 아주 특별한 찬양 22:30 주성민 목사의 주일길 (15일) 11:00 경원의 시간 15:00 성경의 말씀 19:00 성경의 말씀 23:20 성경의 말씀
다큐·해외	사이언스 TV	내셔널지오그래픽코리아	BBC World	CNNnT I
	12:00 황금나침반 16:00 야생 생존의 법칙 22:00 테마기행 세계의 절경 (15일) 12:10 성공담 과학특 최강기업 15:20 생존의 법칙 와일드 라이프 19:00 에메이징 우주 대탐사 23:00 다크스프라이	11:40 Big Fix Alaska 16:15 High Maintenance 23:00 The Hot Zone: Anthrax (15일) 12:35 Colossal Machines 15:20 Slopover 18:05 Europe From Above 23:00 Narco Wars: The Mob Compilations	12:00 BBC World News 17:00 BBC World News 22:30 The Travel Show (15일) 12:00 BBC World News 15:30 The Travel Show 18:30 Follow The Food 22:30 Click	12:00 Don Lemon Tonight 16:00 CNN Newsroom 22:00 Smerconish (15일) 11:00 Inside Africa 15:00 CNN Newsroom 18:00 CNN Newsroom 23:00 Fareed Zakaria GPS
	EBS플러스1			
	5:0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물리과학Ⅱ 6:4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지구과학Ⅱ 7:3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생명과학Ⅱ 8:2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수학Ⅰ 9:1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미적분 10:00 [2023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특례 11:00 [2023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특례	12: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영어 13:4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국어 14:3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수학 15:2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과학 16:1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사회 17: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역사 18: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외국어 19: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시사 20: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예술특례	21: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영어 (15일) 5:0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물리과학Ⅱ 6:4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지구과학Ⅱ 7:3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생명과학Ⅱ 8:2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수학Ⅰ 9:10 [2023 내신만점 수능특강] 미적분 10:00 [2023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특례	11:00 202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특례 12: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국어 13:4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수학 14:3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과학 15:2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사회 16:1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역사 17: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외국어 18: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시사 19:00 [2023 수능기출의 미래] 예술특례
영화·스포츠	EBS2			
	6:00 안영하세요 캐러 7:00 왕초보 영어 8:00 매일 10분 영어 9:00 최고! 호기심딱지 30 예술가 놀자 12:15 오즈, 마법을 찾아서 14:15 한자로 통하는 삼국지	13:00 한글용사 이야기 30 위 배어 베이스:골 브라더스 15:00 오즈, 마법을 찾아서 16:00 불토론:전설의 수호자 17:00 하트가 빛나는 순간 18:00 배움의 꽃피는 나무 19:30 과학다큐멘터리 20:20 EBS 초대석 12:45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슈퍼 와이드 16:00 형사 가제트 17:0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8:3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00 한국의 놀라움 20:20 부모 클래스 21:10 건축탐구-집 22:00 최고의 요리비결 공방	21:10 바닷가 사람들 22:00 최고의 요리비결 공방 1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5일) 6:00 안영하세요 캐러 30 K-pop 한국어-안영하세요 캠포디아 7:00 왕초보 영어 <15일> 9:00 중국어문법 11:15 중국어문법 13:00 읽을 이기는 건강밥상 15:30 비급 고전 17:45 미인극장 2 19:00 한국학의 즐거움 20:45 스캐니쉬 아파트먼트 22:00 열린연단	8:00 매일 10분 영어 9:00 한글용사 이야기 30 읽을지 뮤직박스 10:00 음악 나라의 엘리스 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반개맨 45 슈퍼퍼워 잉글리시 11:15 봉구야 말해줘3 30 할 수 있다고 2
		방송대학 OCN		
	12:45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슈퍼 와이드 16:00 형사 가제트 17:0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8:3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00 한국의 놀라움 20:20 부모 클래스 21:10 건축탐구-집 22:00 최고의 요리비결 공방	9:00 일본어 기초2 11:15 일본어 기초2 13:00 혼자 떠나도 괜찮아 16:00 한국학의 즐거움 18:00 무궁화 삼천리 20:45 스페니쉬 아파트먼트 22:00 열린연단	9:00 중국어문법 11:15 중국어문법 13:00 읽을 이기는 건강밥상 15:30 비급 고전 17:45 미인극장 2 19:00 한국학의 즐거움 21:00 타인의 선거 23:00 오래된 새 집	



FM 103.9MHz
낭만이 있는 곳에
오후 10시

每日新聞 土 오후 4시

TBN
대구교통방송
FM 103.9MHz
낭만이 있는 곳에
오후 10시
每日新聞 뉴스 오후 4시

전국 최고의 낚시매장 600평 초대형 매장

이월상품 · 특가상품 · 중고상품
(참자는 낚시대 보상으로 교환)

낚시용품전문점
제일레저
대구 동구 팔공로 535 (지묘동 83-1)

고객문의센터
(매장 연중무휴)T. 1644-4496
H. 010-6569-5524

제일레저를 검색하세요 ▼ 검색

www.jeilleisure.co.kr



에피소드로 읽는 전쟁 톡톡

국경으로 진격한 국군, 압록강가에 태극기를 꽂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십여 년 동안 전쟁기념관의 6·25전쟁 전시관 안에 특별한 디오라마 하나가 눈길을 끌었었다. 무장한 병사가 수통에 강물을 떠 담는 이미지다. 내 손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는 승리감에 찬 환희의 표정을 담고 있다.

6·25전쟁 때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장병들을 상징한 그 조형물 앞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시선을 멈추고 갔다. 비극적인 역사의 현실을 알기에 그 앞에서 더욱 서성거린다.

1950년 10월 26일 오후 2시 15분, 국군 6사단 7연대 장병들은 초산 서북쪽의 압록강 국경선에 태극기를 꽂았다. 부대원들은 너도나도 물가에 엎디어 청푸른 물빛 위로 출렁거리는 압록강 물을 마셨다. 통일의 기쁨에 겨워 솜베를 들이켜듯 마시고는 다시 자신의 수통에 한없이 속배 담았다. 부풀어 오르는 희망의 빛을 가득 담아 부었다.

강물 위로 통일의 개선을 약속하는 태극기가 강바람에 펄럭였다. 9월 28일 서울을 되찾은 국군은 곧바로 38도선을 넘어서고 평양을 점령하는 개가를 올린다. 영전회전에 이어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국군은 그 기세를 몰아 거침없이 북진하였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밀고 올랐다. 개전 초 탕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진의 세력도 이상이었다.

국군1사단은 임진강 변 고량포에서 평양까지 하루 25km를 진격했다. 세계 전쟁사에서 패속 진격으로 알려진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스탈린그라드 전투)한 속도를 초월한 것이었다.

10월 20일 국군은 평양에서 이른 아침을 맞는다. 무서리가 지려 내린 북쪽 땅은 꽤 쌀쌀하였지만 그 한기를 느낄 새가 없었다. 이미 교량이 폭파되어 버린 대동강을 건너 평양 시내까지 깊숙하게 들어갔다.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이 된 국군1사단의 승전보를 들은 전쟁 지도부는 남북통일의 지도를 그리는 데 망설이지 않았다. 이승만은 전의를 다그쳤고 맥아더 또한 종전과 달리 낙관하였다. 적의 핵심부를 점령한 선물을 놓고 싶지 않았다.



국군의 강렬한 진격 의지를 본 맥아더는 평남 정주-함남 함흥까지 걸친 기존의 맥아더라인(북진 한계선)을 철회하고 선천-풍산-성진으로 북상시켰다. 이는 사실상 공격제한을 없애버린 것이나 다름 없었다.

“추수감사절 파티에 남북통일이라는 성대한 예물이 놓일 것이다.” 맥아더의 새로운 복진 한계선은 국군은 물론 유엔군에 이르기까지 각 부대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선을 향하여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달려가게 하였다. 눈앞에 보이는 승리에 도취되어 성급하게 삼패인을 터뜨린 건 아니지 모르겠다.

낙관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빚을 국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맥아더도 미처 내다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북한군 지원에 나선 중공군이 10월 중순,

압록강을 넘어 적유령 산맥 골짜기에 두더지처럼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국군2군단의 좌측 부대로 앞서서 진격한 국군 6사단은 압록강까지 하루거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압록강! 압록강!”

이미 평양을 점령한 국군1사단은 비록 몸은 지쳤지만 사기충천하여 '압록강'을 외치면서 통일로 다가서는 진격을 계속했다. 청천강 북쪽 운산을 지날 무렵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을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질 않았다. 10월 25일, 그토록 순조롭게 진격해 가던 길을 갑자기 적의 대부대가 가로막았다. 국군이 중공군과 최초로 맞닥뜨린 운산전투, '중공군 제1차 공세'다.

압록강을 향해 진격해 나가던 6사단 7연대는 마침내 초산에 이르렀다. 10월 26일 해가 저문쯤 솟아올랐다. 무심한 압록강은 가슴에 품은 햇살을 강물 위로 흩뿌렸다. 신리의 환호성은 잠시뿐, 유속이 빠른 그 강물 위로 신기루가 되어 흘러가 버렸다. 그리고 찾아든 비극은 되로를 잃어버린 채 홀로 남쪽으로 철수해야 할 운명뿐이었다. 그즈음 어떤 국군부대도 7연대를 구원할 처지가 아니었다.

압록강은 한으로 얼룩져 흘러내렸다.

그리고 미저 압록강에 이르지도 못했던 국군6사단 2연대를 비롯한 2군단 예하 부대들도 각각 전투 지역으로 조여드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가 버거웠다. 전장마다 죽음의 불꽃이 튀기 시작하였다.

이제 압록강은 우리들이 나아갈 수 없는 장벽의 강이 되어 버렸다. 압록강은 더 이상 그날 수통에 떠 담던 통일의 강이 되지 못한 채 70년이 흘러갔다. 그 흘러간 자리에서 징비(懲毖)의 퇴적층을 만날 수가 있다. 압록강은 다시 한을 넘어 희망으로 다가설 수 있 으리라.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는 새로운 시대의 궤도 위로
여한의 압록강을 올려놓고 싶다.

김정식 육군삼사관학교 명예교수

시사상식 퀴즈

1 충남 홍성군 관천읍에서 만들어지는 '이것'은 토굴 속에서 숙성시키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름을 얻고 있다. 재료의 수확 시기에 따라 이름도 다른 '오젓', 6월에 수확해 담근 담그면 '추젓', 겨울에 수확 다. '이것'은?(힌트 5월 12일)



가 됐다. 이곳에는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다는 세바람꽃, 바위미나리아재비, 고산에서만 자란다는 설영초, 바위솔나무 등이 한꺼번에 만개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2020년 동북아시아 전지핀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내외 고산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은? (힌트 5월 10일 자 매일신문 11면)

3 올해 ‘이곳’에서 열리기로 한 아시안게임이 갑작스레 연기돼 많은 선수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중국 저장성의 성도(省都)로, 서쪽 교외에 시우호(西湖)를 끼고 있어 중국 내에선 ‘아름다운 고장’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중국 강남 지역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며, 남송 시대 수도 역할을 하기도 한 이 도시의 이름은?(힌트 5월 10일 자 매일신문 21면)

4 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내륙국 중 하나로 수도는 방기(Bangui).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1960년 독립해, 독재정권과 쿠데타, 내전 등으로 나라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근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싶다”며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발전해 나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 나라는?(힌트 5월 9일 자 매일신문 22면)



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4월 30일 자 정답

- ① 태실 ② 호너스 와그너
③ 에마누엘 마크롱 ④ 스태그플레이션

1.2종, 대형, 2종소형, 견인차 자체시험 (쥬레라)

- ▶ 54년 전통의 대구 최고 명문학원(since1968)
- ▶ 대구 시내 매시간 통학버스 운행
- ▶ 면허증 취득시 각종 공무원시험 가산점 혜택
- ▶ 공원 같은 쾌적한 교육장
- ▶ **NAVER** 대구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 검색
- ▶ 학원에서 연습하고, 학원에서 시험칩니다!

동양자동차운전전문학원

팔달교 옆
(3호선 팔달역 앞)

053-314-8888



최경규의 행복학교

굿가이 콤플렉스



세상 사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만, 전달 방식이 문제인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 서인지 도무지 생각조차 못 한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잘 해주고 기대하지 말자며 지난날 후회 속에 다 집했던 자신을 몰아세우기에 바쁘다.

한때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바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상처받는 마음이 문제이다. 끊임없이 웃음을치는 사람의 우물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느냐하는 친절도 사람의 문제인지라 때로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고 난 후 보파리를 요구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그 아픔을 무시하며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을 살며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도 가지지만 때로는 적이라는 이름도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다. 이즈음에서 어릴 적 무렵에서나 본 듯한 말 '인자무적(仁者無敵)' 이 기억난다. 인자무적,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이 말을 풀이하면, 사람이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면 적이 없다는 말이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각자의 경험에 맡기기로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불만과 스트레스라는 찌꺼기는 어떻게 치울 것인가? 친절은 하되,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비결에 관하여 한동안 연구한 적이 있다. 수많은 비책 중에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은 한 가지 대답은 바로 공자가 말한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4글자에 들어 있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무엇이든 과한 것은 차라리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 즉 친절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그 친절이 자신의 기쁨이나 환경까지 변화시킬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는 안 된다. 굿가이 콤플렉스(Good Guy Complex) 라고 들어보았는가? 쉽게 말해 굿가이 콤플렉스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다.

이러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한다. 직장에서도 모임에서도 자기가 할 말을 못하고, 부하 직원에게 불만이 있어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상대를 미워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라고 한다. 불만은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이런 굿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최선을 다해 그에게 몰입하지만, 나중에 상처를 쉽게 받는다. 이에 대하여 나는 호의(好意)도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7:3의 황금비율을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나 표현을 모두 하지 말고 7할만큼만 쓰고 나머지 3할은 남겨놓아야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감정 범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다. 항상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잘해준다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가치를 100만큼 알지 못한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때로는 혼자 남겨두는 시간을 주는 것, 3할의 시간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명심보감에서도 맥락을 함께하는 구절이 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는 말을 10분의 3만 하고, 진짜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으면 안 된다. 호랑이 세 마리의 입을 두려워 말고, 사람이 두 개의 모습을 가진 마음을 두려워하라.”

사랑에 빠진 연인이 상처받는 이유 중 대부분은 ‘내 마음 같지 않은 당신’ 때문이다. 너무 가까워서 가슴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말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 해 버리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명심보감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 보면 자식을 향한 끝없는 짝사랑에 빠진 엄마들이다. 내 목소리보다 소중한 아이들이라 자신의 모든 것을 언제나 내어줄 각오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엄마들을 볼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 외국 친구들을 비교적 많이 만나는 나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사고를 구분할 때, 그 내면에는 엄마의 절대적인 사랑이 기초한다고 말한다.

◆경청과 공감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정이 많고 사람에 민감하다. 좋은 면으로 보면 인간미가 넘치는 민족이라 볼 수 있지만, 정작 개개인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 반

대로 인정미는 좀 없든지 몰라도 외국인들은 매우 독립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외국인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주는 마음에 비해 때로는 쌀쌀했다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일까?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인들보다 상처를 덜 받는 듯하다. 마음을 쉽게 보이지도 않고, 선풍 모든 것을 오픈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이 소통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바로 경청(傾聽)과 공감(共感)이다. 그들은 70%를 듣고 30%에 반응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7:3의 법칙과 같다. 아이러니하게 이 경청과 공감에는 공통으로 마음 심(心)자가 들어있다. 즉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공감한다는 의미이다.

사랑과 친절 역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보통의 사람들은 복잡한 세상, 내 마음의 곁과 같지 않다면 더이상 만남을 지속시킬 의미를 찾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어쩌면 계산기보다 더 복잡한 계산기를 머리와 가슴에 담고 각기 계산을 한다. 머리로 하는 정량적 분석과 가슴으로 느끼며 계산되는 정성적 분석, 이 두 가지 분석의 통계 평균으로 자신이 준 것과 받은 것의 셈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준 부분에 대비하여 받을 때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는 머리로 하고, 그 가치에 대하여는 가슴으로 정성적 평가를 한다는 말이다.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이러한 복잡한 공식이 싫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본바, 많은 사람이 좋은 싫든 이러한 논리에서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준 사람은 더 주었다고 생각하고, 받은 사람은 덜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주어야 기본은 했다고 생각하고, 받을 때는 조금 적게 받아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굿가이, 이름만큼이나 좋은 것이 아니다.

행복학교 교장

날말 맞추기 ■■■ (제168회)

〈문제〉 제공: 강주현

1			2	m	3		4	
	m	m	5			m		m
6	7	m		m		m	8	9
m	10	11	m	12		13	m	
14	m		m		m		m	
	m	15	16		m	17	18	m
19	20	m		m	21	m	22	23
m		m	24			m	m	
25				m	26			

● 가로 열쇠 ●

-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
- 남에게 아첨하여 구차스럽게 굴. 또는 그런 행동.
- 일구어서 농사를 지을 만한 땅.
- 책망이나 괴로움 따위를 달갑게 받아들임.
- 머리털을 깎아 다듬음.
-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여 내려옴.
- 그렇게 된 까닭.
-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

〈제166회 정답〉

동	주	상	구			환	호	성
참		주		정	착	금		황
	비	불	외	곡		작		
일	행		유		우	물	쭈	물
거			내	야	수			장
수	고	무	강		마		선	구
		주		노	발	대	발	
응		공	신	력		장		삼
석	가	산			산	간	벽	촌

● 세로 열쇠 ●

-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냄.
- 달리어 감. 또는 그런 걸음걸이.
- 숨기던 것이 드러남.
- 일이 잘되고 못됨이 결정되는 요긴한 대목. ‘〇고〇’
- 겉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산과 바다에서 나는 온갖 진귀한 물건으로 차린, 맛이 좋은 음식.

-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리게 된 느낌.
- 솔 만한 사람이 없어서 매우 아쉬운 일.

- 주로 봄날 햇빛이 강하게 쬔 때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이는 현상
- 땅이 움푹하게 파인 곳.
- 나이나 항렬 따위가 자기보다 아래이거나 낮은 관계. 또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 미사일, 로켓, 광선 따위를 쏘기 위하여 고정시켜 놓는 받침대.
- 웬만한 일에는 겁내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대담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
- 남에게 따돌림을 당하여 떨어진 듯한 느낌.
-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 가로막은 것을 쳐서 깨뜨려 통과할 수 있도록 뚫은 통로나 목. 부딪친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해결하는 실마리.
-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이 진중(陣中)에서 쓴 일기.
- 꽃이 활짝 다 필.
- 물건을 보에 써서 꾸러 놓은 것.
- 토지나 건물, 수목 따위의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
- 주로 여자의 다리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응 모 요 령

- ▶제168회 날말 맞추기·스도쿠·시사상식 퀴즈 정답을 5월 25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주소를 반드시 기재해 주십시오)
- ① 우편연서 ② 이메일: dokja@imaeil.com
- ③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검색→‘대일신문’ 검색→친구 추가→1대1 채팅
- ▶정답은 5월 28일 지면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 ▶보내실 곳: 대구시 중구 서성로 20 대일신문 신문국 여론특집부(우편번호 41933)

스도쿠 (제168회)

〈문제〉

	8			6			3	
5			1			2		8
	6		2		8			
	3		1		9	7		
4			7		9			6
	9	6		5		3		
			9		7		2	
9		8			6			1
	3			8			9	

〈제166회 정답〉

1	9	8	7	3	5	6	4	2
5	7	2	1	6	4	8	9	3
6	4	3	2	8	9	7	1	5
9	5	6	4	7	1	3	2	8
2	8	7	9	5	3	4	6	1
4	3	1	8	2	6	9	5	7
8	1	4	5	9	7	2	3	6
7	6	9	3	1	2	5	8	4
3	2	5	6	4	8	1	7	9

스도쿠 문제의 정사각형 안에 1~9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9의 숫자를 사용하여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하여 보세요.

이번주 상품 받으실 분들

문의: 053)251-1580. dokja@imaeil.com

다을·우산·기념품
홍리방백토리움
053-423-2300 / www.송월홍리방.com
최고급 족사타을 5매일 1세트

▷김정규(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스도쿠

미성온천
도심속 유산염광천온천
053-627-8600 / www.misungspa.com
이용권 5매

▷최안숙(대구 수성구 교학로)
날말 맞추기

Phinehas
비느하스 유용미생물케어제품
영바이오 / www.youngbio.co.kr / 1666-3988
비느하스(삼푸) 1개

▷박일수(경산시 하양읍)
시사상식 퀴즈

자연이 주는 선물 피톤치드
힐링숲·숲에온
010-3813-6773 / www.phytoncide120.com
피톤치드 오일+피톤치드 마유비누 각 1개씩

▷김나경(대구 달서구 장기로)
우리 아기 태어났어요

대한민국 대표 관측물 소평물
그린기프트
1588-8480 / www.greengift.kr
프레스코 프리미엄 선물세트 1개

▷배상돈(구미시 상사서로)
날말 맞추기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자동차 및 관련 유물 기증받습니다
054)742-8900 / carmuseum.co.kr 경주시 보문로 132-22
박물관 입장권 2장

▷정송희(경산시 하양읍)
시사상식 퀴즈

역사·문화·스토리가 있는 여행
모키드
www.mokid.net / 053-635-3231 / 010-8681-3231
5만원 여행상품권

▷이차섭(대구 서구 국제보상로)
날말 맞추기

SPARK
053-230-2010 / d-spark.co.kr
초대권 2매

▷정송숙(대구 수성구 용학로)
날말 맞추기

아고라와 주권재민

광장



김문환
역사 저널리스트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아고라(Agora)로 가 보자. 아고라는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던 너른 마당이다. ‘아고라조’(Agorazo=물건을 사다)가 어원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장터다. 점차 정치 집회도 열고, 체력 단련장으로도 썼으니 공적 목적의 장소다. 각종 관공서도 여기에 자리했다. 아고라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판아테나이가 도로에 서면 소크라테스가 제자 플라톤과 인생을 논하며 걸었듯 장면을 그려진다.

르네상스의 3대 화가 중 한 명인

라파엘로가 바티칸 교황청 서명의 방에 그린 벽화 ‘아테네 학당’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걸으며 대화하는 장면도 디졸브된다. 21세기 지구촌 학문, 문학, 예술, 문화 분야의 정수는 B.C 5세기 아테네에 뿌리를 둔다. 그러나 아테네는 오래된 현재로, 다가올 미래다. 민주주의와 연계된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다.

아고라 판아테나이가 도로 옆에 아탈로스 스토아가 자리한다. 헬레니즘 시대 강국 페르가몬의 아탈로스 2세가 젊은 날 아테네에서 유학하며 공부한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B.C 150년쯤 콘돈을 들여 지어준 건물이다. 오늘날 보는 새물내 물결 풍기는 아탈로스 스토아는 미국이 1956년 복원해 준 덕분이다. 이 아탈로스 스토아 앞에 걸푸른 이끼 가득 덮인 낡은 돌 받침 같은 연단이 탐방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베마’(Bema)라고 부른다.

B.C 621년 드라콘의 법치 개혁부터 시작해 B.C 462년 에피알테스의 민주 개혁까지 160년 세월을 거치며

단행된 4차례의 권력 분산 개혁의 성과물,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이 바로 베마다. 자유 시민이면 누구나 아고라에서 열리는 민회 에클레시아(Ekklesia) 회기 중에 이 베마에 올라 평등하게 발언할 권리를 가졌다. 베마에 오른 주권자들의 자유로운 논의와 표결로 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이 결정됐다.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유다.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은 바로 이 국민(Demo)의 정치(Cracy)에서 나왔다.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 서구 사회에서 복원된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대표를 뽑아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도록 맡기는 간접 민주주의다. 절대왕정을 휘두르던 왕한테서 권한을 빼앗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도기적 성격의 정치체제다. 2016년 영국은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했다. 이제 서구 민주주의의 지향점은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이행이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권자는 국민인 만큼 그 어떤 조직이나 권력도 국민의 직접 정

책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 제111조에 의거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친민주당계 재판관들에 의해 기각되더라도 큰 문제 없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직접 묻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엄연히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과 아테네 이후 2천500년 뿌리 깊은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검수완박 찬반 국민투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킬 호기다. 칸트식으로 해석하면 선택이 아닌 당위(當爲=Sollen)이자 그 자체로서 정언명령(定言命令)이다. 윤석열 대통령 손에 달렸다.

사설 社說

어차피 옮길 염색산단에 1조 원 들이는 게 옳은가

대구염색산업단지(염색산단)에 1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염색산단을 첨단산단으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마냥 낙관할 질 수는 없다. 염색산단을 옮기려는 지역 여론이 높고 실제로 그런 장기 계획이 검토돼 온 마당에 기존 시설에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붓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대구 7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염색산단 첨단화를 선정했다. 대구시의 강력한 건의에 따른 결정이다. 염색산단 첨단화 사업은 염색산단 내 유연탄 발전설비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발전설비를 추가 구축하며 산업단지 에너지 관리 효율화를 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상은 그럴듯해 보인다. 문제는 이와 별개로 염색산단의 외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과 입주 업체들은 염색산단 이전을 바라고 있다. 대구환경공단 노조도 “염색 폐수에 최적화된 하·폐수처리장의 지하화를 즉각 중단하고 염색산단 이전을 추진하라”는 성명을 최근 냈다. 천문학적 비용을 투

입하더라도 대구염색산단 첨단화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와 인식이 거제에 깔려 있다.

대구 최대의 역사(役事)라고 일컬어지는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도 염색산단은 재정비보다 이전이 낫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자해 대구 서부권 도심 발전 중심축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첨단 경제, 스마트 교통, 문화, 환경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와 맞닿아 있는 염색산단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염색산단은 차라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인근에 조성될 예정인 경제특구 같은 곳으로 옮기는 게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대구시의 태도다. 시는 염색산단을 이전한다고 하면서도 부지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현적인 검토나 해 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의문이다.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겠다고 1조 원을 들일 바에야 그 돈을 염색산단 이전 사업에 보태는 게 더 현실적이다. 누구 좋으라고 염색산단 첨단화에 목을 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염색산단 이전은 지금 서둘러도 늦다. 차기 대구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 의식부터 갖춰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된 지도 1년째다. 이용자의 안전도 미착용 운행은 여전하다. ‘살마, 관찰됐지’라는 전별감종의 전형이다. 편의성으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지만 최대 시속 25km는 안전을 담보할 속도가 아니다. 자칫 사망 사고에 이를 수 있음에도 안전장치 확보에 무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단속 등도 역부족이다. 안전 확보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는 7개 업체가 6천 대에 가까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대여한다. 초창기인 2020년에 비해 6배가량 늘었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 가장자리 차로나 자전거도로로 다니도록 했다. 하지만 인도에서 갑자기 나타나 통행자들이 기함하는 경우가 속하다. 도로 표면이 균일하지 않으면 위험천만하다. 베테랑 운전자도 취경한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로 이용을 제한하지만 돌발 장애물에는 대응이 쉽다.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 확보도 시급하다.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야간 점등 등이 이용 안전 수칙이다. 그러나 자주

무시된다. 2인 이상이 안전모 없이 타고 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이런 와중에 안전모를 챙겨 다니기 번거롭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헤어스타일이 헝클어진다는 항변에서는 헛웃음이 난다. 안전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다. 지난해 경찰이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7만 3천 건 넘게 적발됐다. 80%는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사망자도 최근 5년간 45명에 달했다. 결코 가벼운 사고가 아니다.

안전 조치 무시와 인프라 미확보는 관련 사고와 사회적 논란 반복으로 귀결된다. 규제를 강화했다지만 심각한 사고 후유증에 비하면 과태료도 낮다.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명 이상 승차 4만 원이다. 이래서 는 뉘우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운이 없어 단속에 적발됐다고 인식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각성을 위해서라도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 업체 차원에서는 안전모 미반납 시 킥보드 반납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행정 당국도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한다. KTX도 고속철도가 없으면 무소용이다. 인프라가 없으면 개발에 편자일 뿐이다.



야고부
野鼓賦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다. 헌법 44조에 의거, 국회의원은 헌법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구금됐더라도 헌법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다. 국회의원을 부당하게 체포·구금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짙

은 국회의원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속 당이 일부러 입

시국회를 열어 논란이 되곤 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방탄용 출마’라는 비문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경기도 법원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얻기 위해 출마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천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구다.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얼마 전 의원직을 사퇴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000년 16대 총선 때 계양구 선거구에서 승리한 데 이어 계양

갑과 을로 분리된 뒤인 17·18·20·21대 총선에서 ‘불패 신화’를 써 내려온 선거구다. 3·9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2.13% 득표로 윤석열 대통령 득표율(43.56%)을 압도했다. 이번이 없는 한 이전 지사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과거, 국회는 동료 의원을 지키려고 ‘방탄용 입시국회’를 열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방탄 국회’를 넘어

아예 국회의원직을 넘겨 ‘불체포특권’ 방탄 조끼를 돌려가며 입으려 하니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거대 의석으로 국민과 야당, 각계의 반대에도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다. 중수 청장도 사실상 자기네가 뽑겠다고 한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되자 행정부 권한인 예산 편성권도 국회가 갖겠다고 한다. 대통령도 국회가 뽑겠다고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

‘불체포특권’으로 국회를 지킬 때가 아니라, 국회 독재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할 상황이다.

조두진 논설위원 earful@imaeil.com



오늘의 역사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선언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유대 국가 건국위원회 의장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도운 보답으로 유대인 국가 건설을 약속 받은 ‘벨푸어 선언’이 시오니즘에 결정적으로 힘을 보태 준 덕분이었다. 이로써 2천 년에 걸친 유대인의 유랑은 끝이 났지만 쥘 지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새로운 난민이



되었고 폭력과 보복은 끊이지 않아 이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로 변해 버렸다.

박상철 일러스트레이터
eslight@naver.com

每日新聞
The Maeil Shinmun

따뜻한 사랑으로
겨레의 빛이 되리

매일신문
www.imaeil.com

발행인·인쇄인 정창룡 편집인 이동관 논설실장 김해용 뉴스국장 김교영

대표전화 053)255-5001	본사 경북본사 054)855-1700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0 (계산동2가 71)	우)41933
대표팩스 053)255-8902	동부지역본부 054)276-0001	경북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3 NK프라자 3층	우)36759
광고·신화·안내 080-711-2001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서부지역본부 054)453-3333	서울지사 02)733-0755
구독·배달 안내 080-711-2002	1946년 3월 1일 창간 1960년 7월 1일 등록 가-29호(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축합격 2022년 제1회
4월9일 시험
중졸 최고령자 합격!
변 ○ 기 (80세)
수성점 배출(수험번호0224번)

검정고시·수능

수능반
고득점학생반
유학생반
성인반
속성반

8월·내년 4월 시험대비 / 중졸·고졸 1년만에 합격 / 과락제 폐지 / 평균 60점 합격 → 대학진학

개원 19주년 수강료 특별할인 이벤트!

중졸 고졸 수능 30% 할인

합격시까지(2년) KBS동영상+교재무료

고졸고득점+수능 시험대비
엘리트반 신설개강!

차별화된 수업 커리큘럼(8교시 수업)
내신(등급(평균97점 이상) + 수능최저등급으로
경북대·인 서울 대학 진학

• 수업시간 :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30분(8교시)
• 마 감 : 각반 12명 담임제 선학순(문과·이과)

신년 중졸/고졸 특별반

■ 속성합격반 (1:1수업)

• 수업시간 : 주1일~2일
오후반·야간반·주말반

• 대 상 : 자영업·지방거주자(대구·경북·경남)
시간·거리 불편한 분 (비밀보장)

2023년 수능반 개강!

- 시험일자 : 2022년 11월 17일(목) 확정
- 모집대상 : 중3졸업자·유학생·교과자퇴생·검정고시합격자
- 모집인원 : 각반 10명(문과·이과) 지정석
- 특별혜택 : 평가원 모의고사 실시(6월·9월)
매월 사설모의고사 실시 / 매월 모의고사 성적표 우수 수능원서접수 / 수시·정시 입시전문컨설팅
- 학생관리 : 담임제·매일 출결관리/지각, 결석시 ▶부모님 통보
- 교 재 : EBS교재(수능기초+심화+특강+완성)
- 수 강 료 : 개원19주년 수강료 할인이벤트 실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 고득점반 : 평균 97점 이상 수시입학으로 4년제 지명(서울, 수도권), 6교시 수업
- 수능반 : 수능기초 수능심화 수능총정리 문제풀이(이과·문과 각반 10명)
- 학생반 : 중3졸업 유학생·고등학교 재퇴학을 위한 학생반 (영·수기초수업 6교시)
- 남, 여성인반 : 배움의 기회를 놓쳐 대학진학을 준비하시는 분

www.grgosi.co.kr

대구고려학원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205-4, 5층(주차장 완비)

수성점 746-1212

수성구청역 3번출구 (범어약국5층)

학원전용주차장 (학원건물 뒷편)

대구 은행 송원 학원

← 범어거리 수성구청역 만촌거리 →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KBS방송국 3번출구

하남로 고려학원 하문당 학원 농협

범어약국 5층 수성점

제2702호, 수강료 중졸 720,000원/고졸 810,000원

NAVER 최원프리모 검색

명장가발

가발 쓰면 덥지 않습니다.
 흘링 벗겨지지 않습니다.
 수명도 타제품보다 오래 갑니다.
 스타일도 자연스럽습니다.
 가발 쓰고 샤워나 목욕 해도 됩니다.
 티가 안납니다.
 가발 쓰고 CT나
 MRI도 찍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선정한
 최원희 명장 본인도
 탈모로 고민하다 개발하여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해결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제330호 최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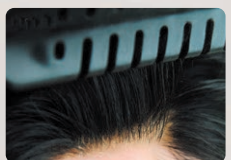
대한민국 명장 최원희
 최원프리모

항암가발
 50%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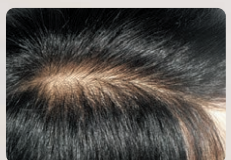
덥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수명이 길고
 스타일은 자유자재 내 마음대로
 가발을 착용하고 목욕도 할 수 있으며 티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머리숱 조절이 가능하여
 처음 착용해도 부담스럽지 않고 가볍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36건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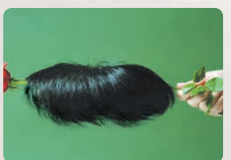
대한민국명장이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명장가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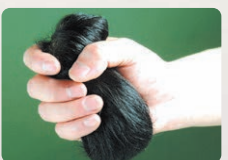
**표나지 않는
앞 이마라인**
 앞 이마라인이 본 머리
 카락처럼 매우 자연스
 러워 가발이라는 느낌
 이 전혀 나지 않는다.



**자연스런
가르마**
 빗으로 빗은 뒤에도
 자연스럽게 되살아 나
 는 가르마는 머리카락
 이 흐트러져도 자연스
 럽다. 손질하지 않아도
 가르마가 되살아난다.



**숨털 같은
가벼움**
 가발의 무게는 약 10g.
 숨털처럼 가벼워 가발
 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부드러운
형상기억**
 부드러움과 탄력성이
 뛰어난 가발을 착용하
 고 잠을 자거나, 목욕
 이나 수영을 한 뒤에도
 가발은 본래의 모습을
 기억해 되돌아온다.



**얇아서
뛰어난 착용감**
 자연모를 최신기술의 인
 공두피인 특수소재에 심
 어 가발의 두께는 매우
 얇다. 내 머리에 꼭 맞는
 1대1 맞춤가발이라 착용
 감이 뛰어나다.



**인체공학적인
환기성**
 인체공학적으로 섬세하
 게 만들어져 모발과 맞
 닿은 초극세화한 구멍
 이 땀구멍의 역할을 해
 서 환기성이 비약적으
 로 향상되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산업포장 제7150호 수훈

탈모로 고민하던 제가
 직접만들어 써보고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명장가발
 최원프리모
 Since 1982

대구반고개본점 **확장이전** 053) **522-9000, 629-8888**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863(내당동 75-35) 지하철2호선 내당역 4번출구에서 300m 직진
 버스: 156, 250, 323-1, 509, 성서2, 급행6 버스정류장 반고개 하차

■전국 1577-0450 ■여의도점 02)780-8993 ■강남점 02)3448-8888 ■창원점 055)274-5858